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짊어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5-6

© 2026. 오수진

님께

CONTENTS

2026 April

EDITOR'S NOTE

가이드포스트 편집장으로 독자님을 만난 지 어느덧 만 4년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지인과 대화하다 보면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네는 저를 발견 하곤 합니다. “가이드포스트에 너와 꼭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힘든 사람에게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말이 “힘내!”라고 하지요. 하지만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이가 건네는 위로만큼 힘이 되는 게 있을까요? 이번 달 ‘SOMEONE CARES’의 넬다는 1980년부터 가이드포스트 글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찾아 건넨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이드포스트는 ‘모든 순간을 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하던 김학영 장로. 그러나 악기가 제 소리를 찾듯, 사람의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30년 넘게 현악기를 고쳐온 그의 삶은, 이번 부활절에 꼭 만나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커버스토리’였습니다. 버려질 가루까지 모아 다시 쓰는 그의 손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10



김학영 장로
(표지사진: 박범준)

22



34



60



- 8 **SOMEONE CARES** 모든 순간을 위한 이야기
- 10 **COVER STORY** 끝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 22 **SPECIAL ISSUE**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아신다
- 34 **EMPOWERED** 당신이 잠든 사이
- 46 **MYSTERIOUS WAYS** 갑자기 차가 멈춘 이유
- 50 **ANIMALS AND HEALING** 부활절에 내게 온 고양이
- 60 **HERE & HEREAFTER** 내가 죽은 날
- 70 **PERSONAL BEST** 기도가 춤이 되던 날
- 82 **POSITIVE PEOPLE** 나무로 만든 흥관조

- 90 **일상의 기적** 생명을 소망하며
- 94 **우리 함께 01** 어떤 시선
- 98 **우리 함께 02** 물 한 잔의 사랑

함께하는 사람들

- 김은혜 동화작가
- 김지연 자유기고가
- 박미선 자유기고가
- 박복순 자유기고가
- 박혜민 객원기자
- 오수진 일러스트레이터
- 이만수 헬크파운데이션 이사장
- 이시내 자유기고가
- 이원재 레노벨로 대표
- 이주연 산마루교회 담임목사
- 자두 가수, 찬양사역자
- 정재필 재현중학교 교사
- 지평선 자유기고가
-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Jerome H.Kim**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Director General

가이드포스트 미국(본사)

- 창립자 Ruth Stafford Peale,
Norman Vincent Peale
- 발행인 John Temple
- 편집장 Edward Grinnan
- 발행처 100 Reserve Road Suite E200
Danbury CT 06810, USA

- 발행인 전재호
- 부사장 전계현
- 편집인 이두영
- 편집장·운영총괄 박세정
- 편집 이승은
- 번역 김보경·김동은·안여현
- 교정·교열 신순자
- 디자인 이명애
- 영업관리 유성석
- 발행처 에프엔제이홀딩스(주)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15, 9층
가이드포스트
- 인쇄처 영진문원
- 반송처 서울 서대문 우체국 사서함 181호
- 등록날짜 1965년 창간 공보부 등록(마-61호)
- 등록번호 서초, 라11781호
- 문의
- 대표번호 02-362-4000
- 홈페이지 www.guideposts.co.kr
- 대표메일 guideposts@fnnews.com



가이드포스트 이야기를 QR코드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포스트>는 도서잡지 윤리 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사진·그림은
<가이드포스트>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루에서 단 한 시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그 일이 고난인지 유익인지
나만의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고난이 온 후에야
과거의 평범했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난 후 이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글 | Alisa Jeon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_ 시편 119:71



Years ago, a friend was struggling with a debilitating back injury. I knew just what to do! I looked through my collection of past GUIDEPOSTS issues to find a story by someone who'd faced a similar challenge. I read her Marilyn Ludolf's story of miraculous healing from the July 1981 issue. We prayed the same scriptures that Marilyn had prayed, and little by little, my friend got better.

Throughout the 1980s and '90s, I shared stories from GUIDEPOSTS with friends and family whenever I thought it might help them. Eventually, I had so many issues of the magazine that it became difficult to

A STORY FOR EVERY NEED

NELLDA FRIEND Leesburg, Ohio

locate the right story when I needed it. So I created a database in Microsoft Word. I type in each story's issue date, page number, title and author name. Then I write a brief summary and choose a story category. Healing. Marriage. Recovery. Depression. Parenting.

When a loved one is facing a challenge, I go to my database and search for a story to give them. I type in the relevant category, and the computer highlights that word throughout my database, showing me which stories address that topic. I choose the story that I think fits my loved one best, then photocopy it from the issue in my collection to send to them. There's a story for every situation, and each one points the reader back to God.

몇 년 전, 친구가 극심한 허리부상으로 고생을 했다. 이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나는 그동안 모아 둔 가이드포스트 과월호를 넘기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1981년 7월호에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마릴린 루돌프의 에세이를 읽었다. 우리는 마릴린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고, 친구는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포스트 에세이를 함께 나누었다. 나중에는 가이드포스트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필요한 에피소드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는 워드 문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각 에세이의

모든 순간을 위한 이야기

넬다 프렌드 오하이오주 리즈버그



발행일, 쪽수, 제목, 작가 이름을 쓰고, 간단한 줄거리를 적은 다음 치유, 결혼, 회복, 우울증, 육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찾는다. 내가 관련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속의 그 단어를 강조하며, 어떤 이야기가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보여 준다. 나는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선택한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이드포스트에서 그 이야기를 복사해서 그들에게 보낸다. 모든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있으며, 각 이야기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

번역 안여현



꺼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

망가진 악기를 들고 공방 문을 여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대개 비슷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게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김학영 장로의 손에 악기가 놓이는 순간, 그 질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다. 그는 악기를 고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살린다고 말한다. 버려질 뻔한 조각과 가루까지 모아 다시 쓰는 손길에는, 쓸모없다고 여겨진 것 하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다. 30년 넘게 현악기를 수리해 온 그의 공방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다. 이곳은 노동의 자리이자 삶의 자리이고, 조용히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손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다. 악기가 다시 소리를 찾듯, 사람의 인생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그는 오늘도 그 믿음을 붙들고, 악기를 마주한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지는 태도, 끝이라고 부르지 않는 하루 속에서 부활은 그렇게 반복된다.

현악기 수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종로에 ‘중앙악기’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우연히 바이올린 하나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는 기술도, 도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사포 하나 들고 시작했죠. 조금씩 만지다 보니 손에 익어 갔고,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 청계천 뒤 철공소에 가서 도구를 빌려 쓰다가, 나중엔 칼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며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가 알려 주거나 배운 것도 없이 거의 독학이었어요.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지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보이고 방법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손으로 익힌 감각들이 쌓이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방향이 마음에 잡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나는 악기들이 많았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다 제 뒷모습을 보며 자란 큰아이가 이탈리아로 가서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현장에서 부딪치며 익힌 사람이고, 아이는 그곳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된 기술을 배우다 보니, 예전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게 되더군요. 반대로, 제가 현장에서 익힌 감각적인 부분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 일은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번은 대구에서 외국 기술자가 진행하는 악기 수리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접 만든 도구를 가져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외국인 강사보다 제 작업을 보러 오더군요. 강사가 설명하는 원리를 들어 보니, 제가 오랫동안 몸으로 익힌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분명해지더군요. ‘아, 이 길이 그냥 혼자 걸어온 길은 아니구나.’

처음 악기를 수리하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어요. 손님 물건이니까, 과연 좋아하실지, 만족하실지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조심스레 수리한 뒤, 손님이 직접 연주해 보고 “와, 이렇게 달라졌네” 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이 참 컸어요. 지금은 손을 대면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성취감이 바로 오지만, 초창기에는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용을 떠나서, 수리한 뒤 연주해 보고 달라진 소리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지금도 제일



내 뒷모습을 보며 자란 큰아이가 이탈리아 유학 시절 악기 제작 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했다.

좋습니다. 싼 악기든, 좋은 악기든 다 한 번은 살려 보라고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연주해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저렴한 악기를 구입해서 아이에게 주고, 소리가 안 나면 아이만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악기일수록 더 손을 봐주고 싶어요. 좋은 소리가 나야 아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악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난 악기가 있었는데,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소리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주인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보이더군요. 사람으로 치면 의사가 진단하듯, 악기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될 줄 알면서 그냥 보낼 수는 없더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보냈냐?”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게 오는 악기들은 비용과 상관없이 손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사문현악공방 오픈을 기념하며.

그런 마음으로 3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셨군요. 중간에 멈추고 싶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다른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 일은 학기를 많이 타고, 비수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게다가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격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고장 나서 찾아오는 악기를 고쳐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손님에게 직접 줄을 사 오라 해서 저는 갈아 주기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입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구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걱정도 많죠.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놓지 않았습니니다. 얼마 전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AI가 못하는 게 거의 없는데, 그래도 AI가 못하는 게 하나는 있다고요. 이 일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소리를 듣고, 감각으로 판단하는 일은 아직 기계가 대신할 수 없거든요. 비록 큰돈이 되지는 않지만, 이 일은 제가 손만 놓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공방에 들어온 악기 가운데, 장로님조차 ‘이건 정말 살아나기 어렵겠다’고 느끼셨던 악기가 있었을까요?

대구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비올라였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망가졌다고 하더군요. 일단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보니 앞판이 완전히 박살 난 거예요. 솔직히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심각했어요. 그래도 조각조각 맞춰 가며 결국



살리기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 제 소리를 되찾은 비올라.

완벽하게 살려 냈습니다. 그분이 엄청 좋아했죠. 게다가 걸모습만 복원한 게 아니라, 소리가 변했다는 게 중요해요. 기껏 고쳤는데 소리가 그대로라면, 저는 그걸 수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기가 와도 제가 손을 대면 반드시 소리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많이 망가져서 오는 악기들이 더 좋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악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그런 경우들을 통해 자주 느끼게 되죠.

악기를 마주할 때, 기술보다 먼저 장로님 마음에 떠오르는 기준이나 태도가 있으신가요?

악기를 보면 먼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연주해 온 경우가 많거든요. 스승도, 본인도 모른 채 그냥 써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진작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콩쿠르나 연주회를 다 마치고 나서야 올 때도 많은데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저는 악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악기를 써 온 사람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게 ‘살려야 한다’는 앞뒤 재지 않고 생기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꼭 손질이 필요한 상태인데도 비용 때문에 그냥 쓰겠다고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못 보냅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고 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되면 그때 값든지 알아서 하라며 일단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으러 올 때 음료수라도 한 잔 들고 오기도 하지요.(웃음)

만드는 일과 고치는 일은 닮았으면서도 결이 다른 작업처럼 보입니다. 장로님이 오랜 시간 ‘수리’라는 자리를 지키신 이유가 있을까요?

만드는 일은 과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는 똑같이 망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르게 망가져요. 조금씩 다 다르게요. 그게 재밌어요. 그래서 성취감도 더 크고요. 또 만드는 건 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기구도 비싸고,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수리가 맞더라고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욕심이 안 나요. 만드는 일은 아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수리는 다 사연이 있잖아요. 부러지고 고장 난 이유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늘 도전입니다. ‘이번엔 애랑 또 어떻게 해 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30년 넘게 하다 보니 웬만한 건 다 겪어 봤지만, 여전히 생소한 경우도 나오고요. 아주 힘들겠다 싶었던 일들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 자리를 오래 지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가루조차도 버려지지 않고 쓰임을 기다린다.

수리 과정에서 나온 작은 조각이나 가루 까지도 다시 사용하는 작업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그런 태도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장로님의 신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브리지 작업을 하다 보면 사포질하면서 가루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걸 다 모아 뒀어요. 꼭 필요할 때가 있어

요. 아주 미세해서 나무 조각을 끼워 넣을 수 없는 부분에 그 가루를 싹 메우면 딱 맞아요. 이거 쓰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또 작업하다 보면 검정 가루도 나오는데, 그것도 다 모아 둡니다. 이게 더 강력해요. 접착제를 바르고 이 가루를 넣으면 쇠까지도 붙어요. 완벽하게요. 이런 방식을 써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건 무조건 다 교체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저는 이 가루로 메워서 그대로 살립니다. 전혀 다른 선택이죠.

저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웬만하면 다 살리려고 해요. 작업에서 나온 가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게 다시 역할을 주는 거죠. 저기 보이는 조명도 버려진 옷걸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쓰시는 분이구나 하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와 지금을 돌아볼 때, 시간 속에서 달라진 부분과 여전히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아내를 중매로 만났거든요. 숙모가 다니던 교회에 다니던 아가씨였는데, 교회 교사도 하고 있던 친구였죠. 선보는 자리에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랑 결혼하려면 교회를 꼭 다녀야 하고, 십일조 생활도 꼭 해야 한다고요. 그때 저희 집안은 교회를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아내도 집에서는 혼자 교회를 다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도 십일조도 뭔지 잘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학교 후배이고 인상도 귀여웠거든요.

그 약속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지켜 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구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선물해 준 복덩이 아내.

제 신앙은 아주 빠르진 않아도 꾸준히 자라왔어요. 돌이켜 보면 신앙적으로 변한 건 성장이고, 변하지 않은 건 그때 했던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거죠. 사람들에게는 팔 불출 소리 들으면서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복덩이 리야!”

약기를 살리는 일이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로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지침을 배웠어요. 그걸 처음 접할 때부터 마음에 있었던 게 있어요. 몸의 한 부분이 회복되면 사람 전체가 살아나듯이, 약기도 고쳐지면 그 울림을 통해 사람도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고친다는 마음보다는,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기가 다시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는다면... 약기도 살아나고, 사람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부활과 닮아 있다고 느껴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던 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결국 같은 맥락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기를 고친다기보다 죽어 있던 약기를 다시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공방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장로님의 신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저는 배운 적도, 저를 가르쳐 준 스승도 없다고 말해요. 그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방법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러니 제 스승은 하나님이라고요.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재능과 감각을 주신 것 같다고, 그러니 당신도 그런 믿음을 가져 보면 좋겠다고요. 억지로 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삶에서 나온 이야기죠.

지난주에도 엄마와 아들이 함께 공방에 왔어요.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 친정어머니는 다니시는데 자기는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따님과 손주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겠냐고,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실 일은 모두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헤어지기 전에 꼭 교회에 가길 바란다면 기도하고 보냈는데, 집에 가서 문자가 왔어요. 축복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방 안에 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특별히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공간에 머무는 동안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면서요.

이곳은 노동의 자리이자 예배의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일과 예배의 경계는 어디에서 만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약기를 고치다 보면 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주일이면 찬양대 지휘자로 서서 목소리를 조율한다.



25년의 세월로 험해진 교회 머릿들을 직접 살리는 작업 중.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용 이 야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알고도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 주는 거죠. 그게 꼭 전도나 선교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더라도 그 방향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삶과 태도 자체가 전해지는 게 있으니까요.

요즘은 위라벨이라고 해서 일과 삶을 나누려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안타깝습니

다. 제게는 이 일이 곧 삶이고, 그 삶 안에 신앙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삶도 이 일을 하며 살고 싶다’는 고백에는 직업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 오며 하나님께서 장로님 삶에 맺게 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요?

제가 하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거의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를 꼽으려면 저는 고객의 만족감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이 곧 ‘기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쁨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들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살려 보려고 애쓰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잘 고쳐 주고, 기분 좋게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은 결국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부활절을 맞아, 지금 삶이 망가졌다고 느끼거나 스스로를 포기한 이들에게 장로님은 어떤 이야기를 건네고 싶으신가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은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그걸 쉽게 느끼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사실 제 자녀들도 아직은 그 믿음이 온전히 서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해 주고 싶어요. 정말 삶이 끝난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말고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저는 이 삶을 통해 믿게 됐습니다. 겉으로 교회만 드나드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이라면 누구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G**

진행 박세정 | 사진 박범준 | 사진제공 김학영 장로

He Knows We Are Human

I was new in my faith
when tragedy struck our family.
Would my faith survive my grief?

By AMBER EMILY SMITH, Georgetown, Texas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임을 아신다

우리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을 때 나는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참이었다.
내 믿음이 슬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앰버 에밀리 스미스 텍사스주 조지타운

July 6, 2019. One month since my husband, Granger, and I had lost our three-year-old son, River, to a drowning in our backyard pool. It was the first time I had been alone since Riv's funeral. Granger and our other two children—seven-year-old daughter, London, and five-year-old son, Lincoln—were at my mother-in-law's for the weekend. I had been with them but came home early. I just needed to be by myself.

I walked into River's bedroom. He'd

2019년 7월 6일은 남편 그레 인저와 내가 세 살배기 아들 리버를 우리 뒷마당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잃은 지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리브(리버(River)의 애칭-역자 주)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었다. 남편과 다른 두 아이, 일곱 살 딸 런던과 다섯 살 아들 링컨은 시어머니 댁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갔다가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리버의 방으로 들어갔다. 리

never spent much time in here, except to sleep. He'd always been running, climbing, exploring. Or racing around in his go-kart, his red hair swooping wildly. Full speed ahead with the biggest smile on his face, that was Riv.

I stared at his empty crib, at the places he'd chewed on the wood while he was teething. I ran my fingers over those little teeth marks, and every emotion I had held in for the past month came pouring out. "I don't want any more sympathy cards!" I screamed. "I don't want to hear that God needed another angel! I just want my son!"

I clutched the crib rail, sobbing. I had been drawing near to Jesu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Why, God? I wondered. Why would you let this happen?* I just couldn't make sense of any of it.

Before this, our lives had been happy. Truly happy. Granger and I had met in 2009. He was a country singer-songwriter living in College Station, Texas, and I was a part-time actor living in Fort Worth. I showed up in his "People you may know" section on Facebook, and he thought I'd be perfect for his new music video. We spent a day together shooting the video, pretending to be in love. I knew shortly after that it was more than just acting for me. I had to see him again. We fell in love quickly and married the following year.

One area where our backgrounds differed was faith. My parents took me to church when I was a kid, but back then God had felt like a distant figure, not a part of our everyday life. Granger wasn't fully walking with the Lord, but he was raised in a home rooted in faith, with parents who were dedicated to instilling Christian values. Granger and his brothers had been involved in church and Christian youth groups.

버는 잠잘 때 빼고는 여기서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었다. 항상 뛰고, 오르 고, 탐험했다. 아니면 빨간 머리를 마구 휘날리며 고카트를 타고 질주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 그게 바로 리브였다.

빈 아기 침대, 이가 날 때 리브가 나무를 씹어 낸 자국들을 응시했다. 손가락으로 그 작은 잇자국들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지난 한 달 동안 억눌러 오던 온갖 감정이 터져 나왔다.

“더 이상 위로 카드 받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천사가 한 명 더 필요했다는 말도 듣기 싫어! 그냥 내 아들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나는 소리쳤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흐느꼈다. 평생 처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신 거죠?’ 의구심이 들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전까지 우리 삶은 행복했다. 정말로 행복했다. 나는 2009년에 남편을 만났다. 그는 텍사스주 칼리지스테이션에서 컨트리 음악 싱어송라이터로 일했고, 나는 포트워스에서 부업으로 배우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페이스북 ‘알 수도 있는 사람’ 목록에 뜨자 그는 내가 자신의 새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촬영하며 사랑에 빠진 척했다. 촬영이 끝난 직후 나는 그것이 연기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를 다시 만나야 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결혼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다른 점 중 하나는 신앙이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교회에 데려가시킨 했지만, 그때 내게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일부가 아닌 먼 존재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신앙에 뿌리를 둔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님은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 주는 데 헌신적이었다. 남편과 그의 형제들은 교회와 기독교 청소년 모임에 참여했다.

우리는 5년 동안 세 아이를 낳았고,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신앙의 토대를

We had three children in five years, and a time came when we decided we wanted to give our children a foundation in faith. I took them to church alone on Sundays because Granger was on tour. I began attending Bible studies and reading devotionals, praying often. I still had so much to learn, but I was finally growing closer to the Lord, and it felt good.

Then one night in June, everything came crashing down. Granger was leaving early the next morning for the CMT (Country Music Television) Music awards, and the kids wanted some extra time playing with him outside. I went to take a quick shower and sat on the bed afterward.

That's when I heard the screams. All I could make out were "River" and "pool." We had an iron fence around the pool. The gate was always locked. River was signed up for his first swim class the following week. But somehow Riv had breached the gate and fallen into the pool without a sound. From there it was a blur. Granger and I traded off CPR attempts until EMTs arrived. River was rushed to the hospital, but his brain had gone too long without oxygen, and he was unable to survive.

I blamed myself for not putting River to bed, not signing him up for swim lessons sooner. Granger thought it was all his fault. By the grace of God, we never blamed each other.

Family and friends rallied around us—bringing us food, praying for us, helping with the kids. Granger and I took turns comforting each other, and Linc and London. But once the kids were in bed, I would curl up on the bathroom floor, the awful visions of that night and all the questions on a loop in my brain. Why did God let this happen? How would we ever survive this pain?

마련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투어 중이었기 때문에 나 혼자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갔다. 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묵상집을 읽으며 자주 기도했다.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지만 마침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기분이 좋았다.

6월의 어느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CMT(컨트리 뮤직 텔레비전) 뮤직 어워드에 가기로 되어 있어 아이들은 밖에서 아빠와 함께 더 놀고 싶어 했다. 나는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리버'와 '수영장'뿐이었다. 우리는 수영장 주위에 철제 울타리를 쳐놨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리버는 그다음 주부터 첫 수영 수업을 받기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리버는 문을 뚫고 들어가 소리도 없이 수영장에 빠졌다. 이후로는 모든 게 흐릿했다. 남편과 나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리버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살릴 수 없었다.

나는 리버를 재우지 않은 것, 수영 수업에 더 일찍 등록하지 않은 것을 자책했다. 남편은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도왔다. 음식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돌봐 주었다. 남편과 나는 돌아가며 서로를 그리고 링크(링컨(Lincoln)의 애칭—역자 주)와 런던을 위로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나는 욕실 바닥에 웅크린 채 그날 밤의 끔찍한 장면들과 온갖 질문들을 끝없이 되풀이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가 이 고통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리버가 세상을 떠나고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은 투어를 재개했다. 투어에서 나오는 급여로 가족을 부양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Two weeks after River died, Granger was set to go back on tour. He had people on salary relying on touring to support their families.

“I think you guys should come with me,” he said.

I agreed. “We all need to be together right now,” I told him. “And it’ll be good for the kids to get away.”

We needed to get away from the scene of our worst night. For the next week, we hit the road for three shows. In between, I tried to find some sense of normalcy for the kids and help them in their grieving process. We explored new cities and towns, checked out parks and museums. But the rest of the tour dates were spread out over the summer when the kids had activities, so we all came home for the Fourth of July weekend. Granger and I decided that the kids and I would stay home while he finished the tour.

Now, here I was, staring at my little boy’s empty crib and crying out to God, wondering how I would be able to go on without my son.

Granger and the kids came home from his mom’s. “Babe, how’s your heart today?” he asked. That was something we asked each other instead of “How are you?” because we knew how we were doing...terribly.

“I was really angry today,” I told him. I didn’t get into my breakdown, but one look at his face and I knew he understood.

“I think we need to move,” Granger said. “I don’t think I can stay here in this house.”

I realized he was right. We couldn’t be the parents London and Lincoln needed if we were here. All of our good memories were overshadowed by the awful one we couldn’t escape.

Once we got settled in our new place, Granger went back on tour. It was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남편이 말했다. 나도 동의했다.

“지금은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곳을 벗어나는 게 애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우리는 그 끔찍한 밤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했다. 다음 일주일 동안 잡힌 세 번의 공연을 함께 다니며 여행했다. 공연 사이사이에 나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감각을 찾아 주고 애도 과정을 도우려고 애썼다. 새로운 도시와 마을을 탐험하고 공원과 박물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여름에는 나머지 투어 날짜가 띄엄띄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기념일 주말에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투어를 마치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집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아들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다. 아들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랐다.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니 댁에서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마음이 좀 어때요?”

남편이 물었다. 우리는 “오늘 좀 어때요?” 같은 형식적인 인사 대신 이렇게 물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뻔했으니까... 최악이었다.

“오늘 정말 화가 났어요.”

내가 말했다. 무너져 내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얼굴만 봐도 그가 이해한다는 걸 알았다.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했다. 그가 옳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있으면 런던과 링컨에게 필요한 부모가 될 수 없었다. 모든 좋은 추억들이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기억에 가려져 있었다.

새 집에 자리를 잡은 후 남편은 다시 투어에 나섰다. 그에게는 정말 힘든

really difficult yet somehow healing for him. But healing wasn't coming for me.

I tried so hard to be the mom Linc and London needed. But I was so broken, I was a shell of myself. Nothing made sense, and everything seemed trivial after River's loss. Still, I knew I couldn't stay in this dark place forever. My family needed me.

I got back to reading devotionals the way I did before losing Riv. I'd hang on to bits and pieces of scripture and encouragement, anything that would give me a little hope.

Granger came home one day, looked at all my devotionals, then up at me. "Babe, I think we need to put these away and open God's Word," he said. We'd never done that before. But right then and there, we grabbed our Bible and opened to the first chapter of Matthew. I soaked up every word. From there, we each read at our own pace every day. Sometimes I didn't understand what I was reading, but I would ask God to reveal himself to me. Please, Lord, show me who you are, I prayed. *I know you are good, but this doesn't feel good. Show me there is purpose in this. Give me strength to be a good wife and mom.*

Little by little, God began to transform my heart and my faith grew. It was about this time that a friend called.

"There's a grief support group that I think might help you," she said. "It's run by a woman named Suzanne out of her home."

I didn't know if I was ready to show up to a group of strangers and talk about my pain. But I knew isolating myself wasn't healthy. "Thank you,"

I told her. "I'll try to go."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치유의 기회가 오지 않았다.

링크와 런던에게 필요한 엄마가 되려고 무척 애썼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였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고, 리버를 잃은 후 모든 것이 사소해 보였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리버를 잃기 전처럼 다시 묵상집을 읽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성경 구절과 격려의 말씀,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매달렸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내 묵상집들을 보더니 나를 바라봤다.

"여보, 이것들 말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을 집어 들고 마태복음 1장을 펼쳤다. 나는 모든 단어를 흡수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매일 성경을 읽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했다.

'주님,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 주세요.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 주세요. 좋은 아내이자 엄마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조금씩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내 믿음은 성장했다. 이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족 자조 모임이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잔이라는 분이 본인 집에서 여는 모임이야."

낮선 사람들 앞에서 내 고통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걸 알았다.

"고마워. 가 볼게."

친구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며칠 후, 수잔의 집 거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Which was how I found myself sitting in Suzanne’s living room a few days later, with 10 people I didn’t know. Suzanne led the group in prayer. Then we went around the room, with everyone telling their story.

I didn’t know how to share that my son had drowned. There is an unspoken judgment that comes with a child’s death by drowning, that the parents should have done something to prevent it.

All too soon, it was my turn to speak. “I’m Amber,” I managed to say. “And my three-year-old son, River, drowned in June.”

“Oh, honey, I am so sorry,” a woman said. “I can imagine the pain that you are feeling right now. I lost my son to suicide.”

“My husband died of a heart attack,” another lady said.

Everyone was grieving their own loss. No one was judging me. I felt something in me ease a little.

The next week, I went back. And I kept going back. The group became a lifeline for me. Suzanne and the rest of the people made me feel that I wasn’t alone. That there was a path forward and I didn’t have to stay stuck in grief forever. Leaning on Granger, reading God’s Word, connecting with others in pain. Those were unexpected blessings in the midst of my grief.

So much of life remains a mystery. I don’t know why River’s time here was only three short years. But I’ve learned to trust the God of scripture—the One who holds our lives in his hands and ordains each of our days. After all, faith means trusting in what we cannot see. And it means being vulnerable with God. He knows we are human and meets us right where we are. Even when we don’t understand, even when we are angry, even when he feels distant. He is there, his goodness closer than we think.

열 명과 함께 앉아 있었다. 수잔이 기도로 모임을 시작했다. 그리고 돌아가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들이 익사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면 부모가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무언의 비난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곧 내 차례가 되었다.

“저는 엠버라고 해요. 6월에 세 살배기 아들 리버를 익사 사고로 잃었어요.” 겨우 입을 뗐다.

“세상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지금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돼요. 저도 아들을 자살로 잃었거든요.” 한 여성이 말했다.

“제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른 여성이 말했다.

저마다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다음 주에도 모임에 나갔다. 계속 나갔다. 모임은 내게 생명줄이 되었다. 수잔과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혼자라는 걸 느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 슬픔 속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슬픔 한가운데서 만난 뜻밖의 축복들이었다.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다. 리버가 이 세상에서 겨우 세 해만 보낸 이유를 나는 모른다.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의 삶을 손 안에 담으시고 우리의 날들 하나하나를 정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음이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말이다.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6

번역 김보경

Night and Day

My sleep schedule was such the opposite of everyone else's, it was like living in another world. Why couldn't I just be normal?

By JJESSICA REED, Walton, New York

당신이 잠든 사이

내 수면 패턴은 보통 사람들과 정반대였으니 다른 세상에 사는 기분이었다.
왜 나는 평범하게 지내지 못할까?

제시카 리드 뉴욕주 월튼

I awoke with a start and stared at the clock on my bedside table. Almost 10 A.M. already? I had to be at work by 10:30! I couldn't be late again. I had been warned about my tardiness.

I'd been so tired after the kids left for school that I got back in bed. I meant to rest for only an hour. I'd even set an alarm. But once again, I hadn't heard it. I grabbed my things and rushed out the door. If I was lucky, I might just make it in the nick of time.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험탁에 놓인 시계를 응시했다. 벌써 아침 10시가 다 됐다고? 10시 반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또 늦을 수는 없었다. 이미 지각으로 경고받은 터였다.

아이들이 등교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딱 한 시간만 쉬려고 했는데. 알람도 맞춰 두었다. 하지만 또다시 듣지 못했다. 소지품을 움켜쥐고 서둘러 문밖을 나섰다. 운이 좋다면 아슬아슬하게 딱 맞춰 도착할지도 모른다.

내가 보조 요리사로 근무하는 헤드

Driving across town to the Head Start preschool where I worked as an assistant cook, I tried to shake off the grogginess. Halfway there, I got stuck behind a slow-moving car. I tried to urge the driver to go faster by creeping a bit too close to their bumper. Come on! I need to get to work!

I loved my job. I helped the head cook prepare lunch, ate with the preschoolers and washed the dishes afterwards. Working with kids had always been my dream. And as a single mom, I needed the income.

The problem was, I hadn't been able to get to sleep at a decent hour for several years. I had been a bit of a night owl growing up, but in adulthood the trait had become extreme and persistent. Most nights, I didn't feel tired enough to go to bed until the morning light streamed through my curtains and the birds were singing outside. I had grown to dread the sun and the birdsong. They were stark reminders of another night lost, another day feeling out of it, as if I were moving through molasses.

I felt a stress headache forming. Finally, the driver in front of me turned off, right before the preschool parking lot. I zipped into a spot and ran to the school doors. A glance at my phone told me I was only a few minutes late. Maybe I could sneak by the office and get to the kitchen unseen. I would make up for my tardiness by staying a little longer after my shift and helping with cleanup.

"Jessica, can you come in here, please?" the preschool director said as I tiptoed past the glass doors of her office. I didn't think this was the best time to talk. Wouldn't it make me even later? But I decided not to mention that and took a seat.

"We love having you work here, Jessica, and the kids love you," she said.

스타트 유치원까지 도심을 가로질러 운전하면서 몽롱함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절반 정도 갔을 때 굼뜨게 움직이는 차량 뒤에서 가로막혔다. 앞 운전자가 더 빨리 가게끔 다그치려고 그 차의 범퍼에 좀 과하게 가까이 다가갔다. 얼른! 난 출근해야 한다고!

나는 내 일을 무척 좋아한다. 주방장이 점심 준비하는 걸 돕고 유치원생들과 함께 먹은 다음 설거지를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장이 언제나 내가 꿈꾸던 일이었다. 그리고 싱글맘으로서 수입도 필요했다.

문제는 내가 몇 년 동안 적당한 시간에 잠들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성장기에도 다소 올빼미족이기는 했지만, 성인이 되자 그 특징이 극단적이고 만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거의 매일 밤 아침 빛이 커튼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바깥에서 새들이 노래할 때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때까지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점점 햇볕과 새소리가 두려워졌다. 잃어버린 또 다른 밤, 당밀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멍하게 보내는 낮 시간을 냉엄하게 각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성 두통이 나는 게 느껴졌다. 결국 내 앞의 운전자는 유치원 주차장 바로 앞에서 옆길로 빠졌다. 나는 주차 칸에 쟁쟁하게 들어간 다음 유치원 문으로 달렸다. 핸드폰을 슬쩍 보니 겨우 몇 분 늦었을 뿐이었다. 사무실 옆으로 몰래 들어가서 들키지 않고 주방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 좀 더 남아서 청소를 돕는 걸로 지각을 만회할 거야.

"제시카, 이쪽으로 와 주겠어요?"

까치밭로 원장실 유리문을 지나가려는데 원장이 말했다. 지금이 이야기하기에 좋은 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러다가 훨씬 더 늦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제시카와 같이 일해서 무척 기뻐요. 아이들도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끼리 의논했는데 제시카가 습관적으로 지각해서 주방장이 점심을 준비하느라 일을 더 해야 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시카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But as we discussed at your review, it isn’t fair for you to show up habitually late and put extra work on the head cook to get lunch ready. We are going to have to let you go.”

I hung my head as I went back to my car, walking slowly this time. There was nowhere I had to be now. I drove off, my sense of failure morphing into anger. Not at the people at my job. I understood their decision. I was mad at myself.

This wasn’t the first job I had lost, and it was never because of the quality of my work. My bosses had always praised my work before delivering the blow. Why couldn’t I get it together in the mornings like everyone else? What kind of person couldn’t make it to a job that started at 10:30? Someone lazy and irresponsible.

Stopping for gas on the way home, I shielded my eyes from the too-bright sun and watched the other customers, carrying coffee and calling out cheerily to each other. Why couldn’t I be more like these normal people?

By the time I got home, I had a full-blown headache. And I was still tired. I crawled back under the covers. I needed a nap. Everything else could wait.

The nap threw me off schedule. That afternoon, I ran out of the house again, hurrying to pick up my kids from school. It was easy to find a parking spot as the other parents and kids had left. Standing on the steps were my son, River, seven, and my daughter, Willow, twelve, accompanied by an employee from the school office. I was only 15 minutes late, but it hadn’t been the first time, and the kids were anxious. I apologized to them and to the staff. Could this day get any worse?

It turns out, it could. Back home, finally feeling energetic, I began to straight-



이번에는 천천히 걸어서 차로 돌아가면서 고개를 떨궜다. 이제 있어야 할 곳이 없었다. 차를 타고 떠나면서 패배감이 분노로 변했다. 직장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들의 결정을 이해했다.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었다.

이번이 실직한 첫 일자리도 아니었으며, 내 업무의 질 때문도 아니었다. 상사들은 일격을 날리기 전에 항상 내 일을 칭찬했다. 어째서 나는 다른 모든 이처럼 아침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대체 10시 반에 시

작하는 직장에 제때 가지 못하는 걸까?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다.

집으로 오는 길에 주유소에 들렀다가 지나치게 밝은 햇볕을 피해 눈을 가렸다. 그러다가 다른 손님들이 커피를 들고 활기차게 서로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왜 나는 저런 일반적인 사람 같지 못할까?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두통이 절정에 이르렀다. 계다가 여전히 피곤했기 때문에 침구 아래로 기어들어 갔다. 낮잠이 필요했다. 그밖의 일은 모두 미뤄도 됐다.

낮잠 때문에 일정이 꼬여 버리고 말았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데리러 서둘러 학교에 가느라 또 집 밖으로 달려 나갔다. 다른 부모와 아이들이 이미 떠나고 없었으니 주차 칸을 찾기는 수월했다. 계단 위에 일곱 살 아들 리버와 열두 살 딸 윌로가 학교 행정실 직원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고작 15분 늦었을 뿐이지만 처음 있는 일도 아닌 데다가, 아이들이 초조해했다. 아이들과 직원에게 사과했다. 하루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더 나쁠 수 있었다. 귀가해서는 드디어 기운을 차렸다고 느끼면서 집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밖에서 놀았다. 그러다가 리버가 이웃에 사는 친구와 함께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엄마, 간식 먹어도 돼요?”

아들은 뒤따르는 친구와 함께 주방 모퉁이를 돌면서 말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en up the house. The kids played outside. Then River ran inside with a friend from the neighborhood. “Mom, can we have a snack?” he said, rounding the corner into the kitchen with his friend behind him. Suddenly River stopped, and I heard him tell his friend that he’d meet him back outside.

Once we were alone, River looked around slowly. I was suddenly conscious of the breakfast dishes still on the table and the pile of laundry on the floor. He was embarrassed, I realized.

“Mom, what do you do all day when we’re in school?” he asked.

My face burned with shame. But River deserved my honesty, and he was old enough to know something was wrong. “If I’m not working, I sleep,” I said.

Letting my kids down was even worse than losing my job. I watched my son walk back outside and noticed he didn’t bring his friend back in.

I needed answers. I went to my doctor, who diagnosed me with insomnia and put me on prescription sleeping pills. The diagnosis didn’t seem totally accurate. I didn’t have problems falling or staying asleep if I went to bed when my body wanted to. I slept fine during the day. But I was so sick of not being normal, I eagerly took the medication. It did get me on a schedule that was more aligned with everyone else’s. But I still woke up groggy from the side effects.

It wasn’t until my sister came to visit that I found out another reason I was tired. She sat me down and told me that she had observed me sleepwalking. I’d been cooking and eating and cleaning the house, but she couldn’t wake me. I had no idea. Then a few friends told me that I’d called them at night, and I didn’t remember that either. A check with my doctor revealed that I was among a small subset of people who react to prescription sleep meds with complex sleepwalking activities that they have no recollection of.

기 멈추더니 친구에게 밖에서 보자고 얘기하는 게 들렸다.

일단 나와 단둘이 있게 되자 리버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아침 먹은 그릇이 여전히 식탁에 있는 데다 바닥에는 빨래 더미가 있는 걸 나도 순식간에 알아챘다. 아들이 부끄러웠겠구나 싶었다.

“엄마, 우리가 학교에 있는 내내 뭐 하세요?”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올랐다. 하지만 리버에게는 정직해야 했다. 그리고 아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 만큼 나이를 먹었다. 나는 대답했다.

“일 안 할 때는 자.”

아이들을 실망시키는 건 실직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아들이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다시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해결책이 필요했다. 의사에게 갔더니 불면증이라고 진단하면서 처방전이 필요한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진단이 전적으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았다. 내 몸이 원할 때 잠자리에 들면 잠이 들거나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낮에는 만족스럽게 잤다. 하지만 평범하게 지내지 못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열심히 약을 먹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맞춰진 일정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여전히 비몽사몽인 상태로 깬다.

언니가 찾아오고 나서야 내가 피곤한 데는 다른 원인도 있다는 걸 알았다. 언니는 날 앉혀 놓고 내가 잠결에 걸어 다니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나는 요리했고 먹었으며 집을 청소했지만, 언니가 날 깨울 수는 없었다. 전혀 몰랐다. 그러다가 친구 몇몇이 내가 밤중에 전화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의사를 만나 확인해 보니, 나는 처방전으로 받은 수면제에 기억하지 못하는 복잡한 몽유병 증세로 반응하는 소수 중 하나였다.

약을 먹는 일은 안전하지 않았다. 자느라 낮을 거의 다 써 버리는 나의 타고난 일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날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잦아서 친구들은 나와 계획을 세우는 일을 피했다. 친구들을 위해 상황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Taking the medication wasn't safe. I had no choice but to go back to my natural schedule, sleeping most of the day away. I was unavailable so often that friends avoided making plans with me. I tried to put it into perspective for them. "It would be like me showing up at your door at 3 A.M. wanting to do something," I said. I lost some friends, but what bothered me most were the snarky comments when I did wake up. Like "Good morning," dripping with sarcasm because it was afternoon. Or "Thank God you're up. We thought you had died."

I sure wasn't thanking God. I felt angry and abandoned. And lonely, being awake while everyone was sleeping, then missing out on things they did while I was asleep. It was as if I lived in another world. How many nights had I begged God to please make me normal, only to be ignored? Why wasn't he helping? Didn't he see me?

Out of desperation, I got an appointment with a sleep specialist and endured an overnight study with electrodes attached all over my body. Of course, I didn't sleep a wink, so I figured they'd gathered no useful data.

The doctor ushered me into his office and looked at me kindly. "My dear, you don't have insomnia. You have DSPS—delayed sleep phase syndrome," he said. "It's a circadian rhythm disorder. If you were in a dark cave with no idea of night and day, you would still sleep at the same time you do now. It is rare but natural and normal for you. You just need to adjust your lifestyle accordingly." Natural and normal. His words played over and over in my head. I didn't need to medicate myself to fit in. This wasn't a personal failure or laziness. It was just me, the way God made me.

And there were others like me. I joined an online DSPS support group. No

"내가 새벽 3시에 너희 집 문 앞에 나타나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아."

친구 몇 명을 잃었지만, 가장 괴로운 건 내가 깬 때 쏟아지는 텅머스러운 말들이었다. 예를 들어 "좋은 아침이야"에는 냉소가 묻어났다. 실제로는 오후였기 때문이다. "내가 일어나서 다행이야. 죽은 줄 알았어"도 있었다.

하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 화가 나고 버려졌다고 느꼈다. 다들 자는 시간에 깨어 있다가 정작 내가 자는 동안 사람들이 했을 즐거운 일을 놓치게 되어 외롭기도 했다.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제발 평범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다가 결국 무시당했던가? 왜 도와주지 않으시지? 날 보시지 않는 건가?

절박한 마음으로 수면 전문가와 예약을 잡고 온몸에 전극을 붙인 채 밤새 이어진 실험을 견뎌 냈다. 물론 한숨도 자지 못했으니 쓸 만한 정보는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의사가 진료실로 데려가더니 상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런, 환자분은 불면증이 아니라 수면 위상 지연 장애(사회적 생활 패턴과 수면 리듬이 어긋나는 장애—역자 주)예요. 일주기(하루를 주기로 하여 나타나는 생물 활동의 변화—역자 주) 리듬 장애죠. 밤낮을 모르는 채로 어두운 동굴에 있어도 지금과 같은 시간에 잠들 거예요. 드물지만 환자분에게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저 생활 방식을 그에 맞추면 됩니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 의사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다. 맞춰 가기 위해 약물 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개인적인 실패나 태만이 아니었다. 바로 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였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 수면 위상 지연 장애 온라인 지지 그룹에 가입했다.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얘기를 나눌 사람이 있었다. 꼭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추는 요령을 알려 주는 조언도 얻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음악이나 무대 공연 같은 경우였다. 월로, 리버, 나는 우리에게 맞는

matter what time it was, there was always someone to talk to. I got good suggestions for how to work around the rest of the world's schedule when it was important to do so. The kids' music and theater performances, for instance. Willow, River and I found a rhythm that worked for us.

“God, if you aren't going to make me normal,” I took to praying, “at least let me know why.” I began to see a shift. When the kids, now grown, visit, we compromise on the times we do things. Then I got a middle-of-the-night phone call from a young man who was an old school friend of River's. He and another friend were at a party and the people who'd given them a ride had been drinking. “We don't feel safe riding home with them,” he said. “I didn't know who to call, but then I remembered you stay up late.” The relief on their faces when I pulled up to get them was all the thanks I needed. Since then, I've become a designated driver.

My favorite calls start with, “I know it's late, but you're always up, and I have an urgent prayer request.” Or “I just need someone to talk to.” I am not a friend who will meet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I'm the friend who will pick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no questions asked.

I recently read in Psalms, “O LORD, You have searched me and known me. You know my sitting down and my rising up...you comprehend my path and my lying down, and are acquainted with all my ways.” God has given me the third watch, and I am grateful.

I can read and write peacefully at night. I switched to babysitting after school and evenings, so I still have my dream job. I block out the morning birdsong with earplugs and the sun with blackout curtains. But the birds sing all day, and I get to see both the sun set and the sun rise.

리듬을 찾아냈다. “하나님, 절 평범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거라면, 적어도 그 이유라도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도 생겼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시간대를 절충한다. 하루는 한밤중에 리버의 오랜 학교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파티에 있는데, 자기들을 태워다 준 이들이 술을 마셨다고 했다.

“그들과 차를 타고 귀가하는 게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밤새 깨어 계시던 게 기억났어요.”

청년들을 데리러 가서 차를 세웠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은 내가 원하던 감사였다. 그때부터 나는 지명 운전자(모임 등에서 취한 사람을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려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역자 주)가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화는 “늦은 건 알지만 언제나 깨어 계시잖아요. 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있어요”나 “그저 얘기할 사람이 필요해서요”로 시작한다. 나는 아침에 제일 먼저 여러분을 만날 친구는 아니다. 대신 한밤중에 여러 말 않고 여러분을 데리러 갈 친구다. 최근에 시편을 읽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시편 139:1-3—역자 주).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세 번째 파수에 두셨으며 나는 그에 감사드린다(예전에 밤을 서너 구간으로 나누어 돌아가며 지켰는데, 첫 번째 파수는 초저녁, 두 번째 파수는 자정 전후, 세 번째 파수는 깊은 밤부터 새벽 사이를 지켰음—역자 주).

나는 밤에 평온하게 읽고 쓸 수 있다. 방과 후와 저녁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바꾼 덕분에 여전히 꿈꾸던 일을 한다. 아침 새소리는 귀마개로 막고 햇별은 암막 커튼으로 가린다. 하지만 새는 종일 노래하고 나는 해가 지는 것과 뜨는 것을 모두 보게 되었다. **G**

번역 김동은

Why did the Car Suddenly Stop?

By MARK ELFMAN, Tomball, Texas



갑자기 차가 멈춘 이유

마크 엘프먼 텍사스주 톰볼

I was a young marine sergeant, only a few weeks into my latest assignment as a military instructor at Goodfellow Air Force Base in San Angelo, Texas, where there was a small Marine Corps detachment. After spending two years stationed at the U.S. base in Guantanamo Bay, Cuba, I was thrilled to be just a six-hour drive from my family. I even splurged on a new compact car, a Nissan Sentra, so that I could have something reliable to get around in

나는 젊은 해병대 하사였다. 소규모의 해병대 파견대가 있는 텍사스주 샌앤젤로 굿펠로우 공군 기지에서 교관으로서 새로운 보직을 시작한 지 몇 주 안 되었을 때다. 지난 2년간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주둔한 터라 가족으로부터 차로 고작 6시간 떨어진 곳에 있게 되어 무척 기뻐다. 가능할 때 돌아다니려면 믿음직한 수단이 필요해서 새로운 소형차 ‘닛산 센트라’에 돈을 아낌없이 썼다. 나는 차를 꼼꼼히 샀다.

and visit when I could. I'd checked out the car thoroughly. One Sunday about 7 A.M., after a long week of training new marines, sailors, airmen and soldiers, I hopped in my Nissan and headed for a park to hike and clear my mind. As I drove through San Angelo's small downtown, it struck me how quiet it was. Eerily quiet—like something out of a *Twilight Zone* episode.

I came to an intersection, and the traffic light turned red. I stopped, which seemed a bit funny because there wasn't another vehicle in sight. I looked around. Nothing but a few small businesses. No homes. No people around. When the light turned green, I hit the gas pedal. Ka-chunk, clank, bang! The car's engine sputtered and died.

Whoosh! At that instant, an 18-wheeler barreled through the intersection from my left, the driver totally ignoring his red light. The big rig was so close to me and going so fast, it shook my little Nissan. And my car wasn't the only thing shaking. I rested my forearms on the steering wheel, my heart hammering. I sat there for a while—I'm not even sure how long. The traffic light cycled through green and red a few times, but there were still no other vehicles on the road.

If my car had started, I would've been right in the middle of the intersection... I could hardly finish the thought. I hadn't yet served in a combat zone, but I never imagined as a marine that this was how I'd have a near-death experience. I hadn't even had time to pray.

Why would my brand-new car suddenly stall? Was it a lemon? A bum battery? Had I somehow gotten bad gas the last time I filled up?

I turned the key. My car started right up. No sputtering. No rattling. It ran as if it had never died in the first place. And it ran perfectly for another three years.

새로운 해병, 해군, 공군 장병, 병사들을 훈련하면서 긴 일주일을 보낸 뒤 어느 일요일 아침 7시쯤 하이킹도 하고 머릿속도 정리할 겸 낫산 자동차에 올라 공원으로 향했다. 샌앤젤로의 작은 시내를 지나는데 너무 조용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해서 「환상 특급」(미국의 미스터라스 킬러 TV 드라마—역자 주)의 에피소드에서 튀어나온 듯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차를 세우고 보니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시야에 다른 차량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가게 몇 개를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았다. 덜컹, 철컹, 광! 차의 엔진이 텅텅거리더니 멈춰 버렸다.

슈우우욱! 바로 그 순간 대형 트럭이 내 왼쪽에서 빨간 불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순식간에 교차로를 지나갔다. 대형 화물 트럭이 아주 가까웠고 매우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작은 낫산이 흔들렸다. 그리고 차만 부들부들 떠 게 아니었다. 운전대에 팔뚝을 얹었고 가슴이 쿵쥔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었다. 사실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신호등이 녹색과 빨간색으로 몇 번 바뀌었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다른 차가 없었다.

‘만일 차가 출발했다면 나는 교차로 한가운데 있었을 거고...’

생각을 끝맺을 수조차 없었다. 전투 지역에서 복무한 적은 없지만 해병대로서 이런 식으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다.

어째서 신형 자동차가 갑자기 멈췄을까? 불량품이었을까? 배터리 고장이었을까? 마지막으로 주유했을 때 어찌다가 불량 휘발유를 넣었나?

자동차 열쇠를 돌렸다. 바로 시동이 걸렸다. 텅텅거리지 않았다. 덜컹거리지도 않았다. 애초에 멈춘 적이 없다는 듯이 달렸다. 그리고 그 후로도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렸다. **G**

번역 김동은

My Easter Stray

The older I got, the harder it was to stop worrying

By LOU DEAN, Dinosaur, Colorado



부활절에 내게 온 고양이

나이가 들수록 걱정을 멈추는 일이 어려웠다.

로우딘 콜로라도주 다이노소어

That cold February morning, the northwest Colorado wind howled as I walked toward my barn. Mice scampered to safety when I opened the door. “You rodents are going to take over now that Two Socks is gone,” I said, unable to hide my dismay.

I’d lost my barn cat to a stroke in the fall. After 30 years in my rural community, I knew that getting another would be no simple task. Cats from the shelter or city-raised

그 해 쌀쌀한 2월 아침, 콜로라도 북서부의 매서운 바람이 헛간으로 걸어가는 내 주위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문을 열자, 쥐들이 겁싸게 안전한 곳으로 달아났다.

“투삭스가 떠나고 나니, 네놈들이 여기를 차지하겠구나.”

허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을에 헛간 고양이를 뇌졸중으로 잃었다. 시골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나는 새 고양이를 들이는 일이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았다. 보호소 출신이나 도시에서

cats didn't stand a chance on Blue Mountain against our coyotes, bobcats and mountain lions. Not to mention the raptors overhead. "Lord," I whispered, "I need a stray cat."

But where was I going to find one? My mind kicked into worry gear. I'd always had a tendency toward what my grandmother used to call "borrowing trouble." To combat it, I'd made a habit of reciting Matthew 6:25: "Therefore I tell you,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But since I'd turned 75, it seemed harder to stop worrying.

Topping my list was my older sister in Oklahoma. From a thousand miles away, I'd spent months trying to help Sis stay in her home. The challenge exhausted us both, and we finally had to admit it was time for Sis to go into a nursing home. Which caused me to consider my own age and circumstances. *What will I do when my own health worsens? When I can no longer take care of my animals and keep up my acre here on Blue Mountain?* That day seemed closer than ever.

I grabbed the snow shovel from the barn. How I missed Two Socks! He had found my barn one cold winter night and ended up being my buddy for nine years, a loyal barn cat. In exchange for a daily portion of kibble and love, he kept the mouse population down. It had taken a long time for him to trust me enough to let me pet him. But I'd patiently offered him food and waited for him to come around. One afternoon, he'd met me at the barn with a meow and allowed me to rub him behind the ears before diving into his food. That became our routine. In the five months since he died, I caught myself listening for that greeting every day, and my heart would ache all over again.

자란 고양이든 여기 블루마운틴에서 코요테, 보브캣, 퓨마에 맞서 살아남기 힘들다. 머리 위 맹금류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 길고양이를 보내 주세요.”

나는 속삭였다. 그런데 어디서 길고양이를 찾는단 말인가? 걱정 모드가 발동했다. 나는 항상 할머니가 ‘걱정 가불’이라고 부르던 성향이 있었다. 그걸 극복하려고 마태복음 6장 25절을 암송하는 버릇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나이 일흔다섯이 된 이후로 걱정을 멈추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내 걱정 목록의 1순위는 오클라호마에 사는 언니였다. 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지난 몇 달간 언니가 자기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그 일은 우리 둘을 지치게 했고 마침내 언니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 나이와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동물을 돌보고 여기 블루마운틴의 1,200평 남짓한 땅을 관리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그날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았다.

나는 헛간에서 제설용 삽을 집었다. 투삭스가 얼마나 그리운지! 투삭스는 어느 추운 겨울밤 내 헛간을 찾아와서는 충직한 헛간 고양이로 9년간 내 친구가 되어 주었다. 매일 거칠게 빵은 곡물과 애정을 받은 대가로 고양이는 쥐들의 수를 줄여 주었다. 투삭스가 나를 믿고 쓰다듬는 걸 허락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인내심을 갖고 투삭스에게 먹이를 주었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렸다. 어느 오후, 투삭스는 헛간에서 야옹 울며 나를 맞았고 먹이로 달려들기 전에 내가 자신의 귀 뒤를 토닥이게 해 주었다. 그것은 우리의 루틴이 되었다. 투삭스가 떠나고 다섯 달이 지난 지금도 나는 매일 ‘야옹’ 인사를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본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저릿해졌다.

나는 눈을 다 치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따뜻한 차를 훌쩍이며 계속 눈이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무언가 하얗고 노란 것이 헛간 안으로 획

I finished shoveling and went back in the house. That afternoon, I was sipping hot tea and watching more snow come down when I saw a flash of yellow and white disappear into the barn. For a moment, I stood, disbelieving. A cat! I thought of my morning prayer and grinned.

I set out bowls of food and water in the barn. The food was being eaten, but the cat remained out of sight for more than a week. I remembered how Two Socks had hidden in the attic of the barn when he first arrived. One afternoon, I took a flashlight, crawled up on the hay in the attic and slowly scanned every inch of it. Two eyes glowed in the darkness.

“Hi there,” I said. The cat came into view, then sank to the floor, as if hiding something. I shined the light closer. My breath caught. There were two tiny bodies squirming on the attic floor.

“Kittens!” The cat didn’t look old enough to have babies. Would they survive? I went to the vet in town and asked if I should bring the kittens down out of the attic.

“With her being wild, if you do, she might move them and you won’t ever see them again,” the vet said. “One thing to try is to buy some canned kitten food for her. It has more protein and might help her nurse her kittens.” I made many trips to the barn over the next two weeks, fretting over the little cat and her kittens. Mama peeked down from the attic when I put out canned food for her. “Hey, pretty girl,” I called to her. “How are those babies today?” She never ventured closer.

One morning, I climbed into the attic to find the babies hadn’t made it through the night. From the back of the attic, where I couldn’t see her, Mama let out a mourning cry that broke my heart.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잠시 믿기지 않아 서 있었다. ‘고양이야!’ 나는 아침에 드린 기도를 떠올리며 활짝 웃었다.

나는 사료와 물 그릇을 헛간에 꺼내 두었다. 사료를 먹은 흔적은 있는데, 고양이는 일주일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투삭스가 처음 왔을 때 헛간 다락방에 숨어 있던 것이 기억났다. 그날 오후,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다락방의 건초 위로 기어 올라가서 천천히 구석구석을 살폈다. 두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안녕.” 내가 말했다. 고양이가 시야에 드러났지만, 무언가를 숨기는 듯, 바닥으로 툭 내려갔다. 나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추었다. 숨이 턱 막혔다. 작은 고양이 두 마리가 다락방 바닥 위에서 꿈틀거렸다.

“새끼 고양이다!”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낳을 만큼 충분히 자란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마을 수의사를 찾아가서 새끼 고양이들을 다락방에서 꺼내 데려와야 할지 물었다.

“어미가 야생 고양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미가 새끼들을 옮겨 버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의사가 말했다.

“한 가지 해 볼 수 있는 건 새끼 고양이용 통조림을 사서 어미에게 줘 보세요. 단백질 함량도 더 높고, 새끼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후 2주 동안 작은 어미와 새끼 고양이 걱정에 조마조마하며 헛간을 들락거렸다. 먹으라고 통조림을 놓아 주면, 어미는 다락방에서 얼굴을 힐끔 내밀었다.

“안녕, 귀여운 고양이.” 어미를 불렀다.

“새끼들은 오늘 괜찮니?” 그는 절대 위험을 무릅쓰며 다가오진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밤사이 새끼 고양이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락방 뒤쪽에서 어미가 슬피 울었고,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새끼 고양이들을 치워서 어미의 슬픔이 상기되지 않게 해야 했다.

“괜찮아, 고양이야.” 내가 말했다.

I had to remove the kittens so she wasn't reminded of her loss. "It's okay, pretty girl," I told her. "Things will get better. You'll get through this." But she remained hidden.

I buried the two tiny kittens near my flower garden and said a prayer. I wished God might somehow comfort Mama, but I worried she would vanish as suddenly as she had appeared. For days, I saw no sign of her.

I called the vet for advice. "Borrow a live trap, and put her food in there. Something more tempting than kibble," he said. "Let her get comfortable going in it. Then set the trap. You need to catch her and get her spayed. Otherwise, she could go into heat again and have more kittens."

I put some chicken in a live trap, but she didn't touch it. A friend suggested sardines. It worked! Mama got used to going into the trap; within a week, I was able to set it and catch her. I got my first good look at Mama. She was so small, barely a kitten herself. The vet verified my suspicion and said, "That's probably why the kittens didn't live. I'd say it was her first heat. She isn't more than a year old."

After her operation, I took the cat back to the barn. She hadn't been really wild in the cage. She just huddled against the far side and looked terrified. "It's okay," I told her as I opened the cage's door. She streaked away.

Would she survive all she'd been through? Would she stay? Maybe the grief of losing her kittens in that barn would be too much.... There I went, borrowing trouble again.

February folded into March. I never knew for sure when I went into the barn if the cat would still be there. She hadn't made one move to get friendly. But I got into the habit of sitting on the hay and talking to her,

"나아질 거야. 너는 이겨 낼 수 있어." 그러나 어미는 계속 숨었다.

나는 새끼 고양이 두 마리를 화단 옆에 묻고 기도드렸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어미를 위로해 주시길 바랐지만, 어미가 갑자기 나타났듯이 갑자기 사라질까 봐 걱정되었다. 며칠 동안 나는 어미의 흔적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조언을 구하려고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포용 덫을 갈아서 거기 먹이를 두세요. 사료보다 훨씬 더 유혹적인 먹이로요." 그가 말했다.

"먼저 어미가 덫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안전하게 느끼도록 만드세요. 그런 다음 덫을 설치하면 됩니다. 어미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발정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는 생포용 덫 안에 닭고기를 놓았지만, 어미는 만지지도 않았다. 친구가 정어리를 추천했다. 효과가 있었다! 일주일 만에 어미가 트랩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을 보고 덫을 작동시켜서 어미를 잡았다. 처음으로 어미 고양이를 자세히 보았다. 아주 작은, 거의 새끼 고양이 같았다. 수의사는 내 의심이 맞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새끼들이 살지 못한 것 같네요. 이번이 첫 발정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습시다."

중성화 수술 후, 나는 어미 고양이를 헛간으로 데려갔다. 고양이는 우리 안에서 사납게 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듯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우리 문을 열며 말하자, 고양이가 확 달아나 버렸다. 그동안 겪은 일을 잘 견뎌 낼 수 있을까? 곁에 머물러 줄까? 아마도 헛간에서 새끼들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나 봐.... 걱정 가불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2월에서 3월로 접어들었다. 헛간에 갈 때마다 고양이가 여전히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미 고양이는 조금도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습관적으로 건초 위에 앉아 내 목소리에 친숙해지도록 말을 걸고 삶이 더 나

trying to get her used to my voice and convince her that life would get better. Sometimes she'd peek at me from her safe place in the attic, but she never came down while I was around.

On Easter morning, March 31, I had plans to attend a sunrise service. I made my way to the barn in the dark to take food to her before I left. I hadn't slept well. I dished out the food, then plopped down on some hay bales.

My sister had fallen the day before and was in the hospital in Oklahoma. "A thousand miles might as well be a million," I said. "What will happen to Sis? Will she ever leave the hospital?" My words echoed off the cold barn walls. Then my worries gained momentum. "What if I have to give up my place and move? What will happen to my animals, especially this cat?"

As I sat there on the hay, it struck me how foolish I sounded. "Lord," I said, "it just isn't humanly possible for me to quit this worrying. Please help me." I felt something brush against my leg. The kitty that I'd been calling Mama was at my feet, looking at me. "Hello there," I said, wiping at tears. "See how silly I am? This time two months ago, I was worrying that I didn't have a barn cat." The cat held my gaze.

"Do not be anxious about your life..." I quoted.

"Meow," she agreed, but when I reached to touch her, she dashed up to the attic again. I had to chuckle at that. "I will call you Favor," I said. And the peace and joy of the season washed over me. I knew in that moment, she had been sent because I needed not only a barn cat but also a reminder not to worry. With God's grace and Favor, I would be able to proceed. I would comfort Sis, take care of my animals and enjoy my acre on Blue Mountain one day at a time.

아질 것이라 확신시켜 주려 애썼다. 다락방의 안전한 공간에서 어미는 나를 엿보긴 했지만, 한 번도 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다.

3월 31일 부활절 아침, 해돋이 예배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출발 전에 먹이를 가져다주려고 어둠 속에서 헛간을 향해 걸어가다.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한 상태였다. 음식을 건네주고는 건초 더미에 철퍼덕 앉았다.

바로 전날 언니가 넘어져서 오클라호마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천 마일이 백만 마일 같네. 언니는 어떻게 될까? 퇴원할 수 있을까?"

나의 말이 차가운 헛간 벽에 메아리쳤다. 그때 내 걱정들이 점점 커졌다.

"내가 이 집을 포기하고 이사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키우는 동물들, 특히 이 고양이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건초 위에 앉아서,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주님, 이런 걱정을 멈추는 게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무언가 내 다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어미 고양이가 내 발치에 앉아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 고양이야."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 정말 바보 같지? 두 달 전에는 헛간 고양이가 이제 없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야." 고양이가 내 시선을 마주보았다.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성경 구절을 읊었다.

"야옹." 고양이가 동의하듯 울었지만, 내가 만지려고 손을 뻗자 쩍싸게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너를 페이버(Favor)라고 부를게."

순간 계절의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을 감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고양이는 단순히 내게 헛간 고양이가 필요해서 보내진 게 아니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려 주려고 온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favor) 덕분에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언니를 위로하고, 동물들을 돌보며, 블루마운틴의 넓은 내 땅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G**

번역 안여현

The Day I Died

Why I'm grateful for the accident that left me with chronic pain

By ANDREW GARCIA, Thousand Oaks, California

내가 죽은 날

만성 통증을 안고 살게 만든 그 사고에 감사하는 이유

앤드루 가르시아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

Every day I live in pain. Mostly it's my left arm. The limb I almost lost in a freak accident a few years ago. Now my brain erroneously senses sharp pain there at every moment. I'm numb in several fingers. I can't grip things with my thumb. I used to be the big, strong, go-to fix-it guy at the church where I'm an executive pastor. The guy who could lift his kids and swing them around without breaking a sweat. I'm not that guy anymore.

나는 매일 통증 속에서 산다. 주로 왼팔이다. 몇 년 전 기이한 사고로 거의 잃을 뻔했던 팔이다. 이제 내 뇌는 오류가 나서 매 순간 그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몇몇 손가락은 감각이 없다. 엄지로 물건을 쥌 수도 없다. 수석 목사로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거구의 힘센 만능 수리 공이었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내 아이들을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내 삶을 영원히 바꿔 버린

And yet I give thanks for the accident that forever changed my life. I've come to believe that pain can be a blessing. That loss itself can be an opportunity.

Not convinced? Well, let me tell you my story...

It happened on my daughter Cara's sixth birthday. It was a cool, fresh Saturday morning at First Baptist, my church in Thousand Oaks, California. My wife, Natalie, and I were planning on hosting a party for Cara on the church grounds later that afternoon. It had rained the night before, so I woke up early to clear the church patio and walkways of fallen leaves. Actually, it was a fun job, mostly because I got to walk around with a leaf blower backpack.

That task was one of the few things I did at church that felt fun in those days. I was 34. I'd been doing ministry of one kind or another for 16 years. Ever since I was a counselor at a Christian youth camp the summer after high school. My dad was a pastor too; I guess you could say it was in my blood. I'd been a pastor at First Baptist for six years. I handled a lot of the day-to-day, the event planning and leading the church school. I knew everything there was to know about the nuts and bolts of a church. Maybe too much. I never let myself say it out loud, but I had fallen into a rut. I was fast approaching a danger zone for pastors: burnout. Sometimes work felt more like an office job than a calling. I worked and worked. But did it really make a difference? It's not as if I were bringing in legions of new people to the church. I'd dreamed of doing big things for God when I was a young man. Now my life seemed to be an endless cycle of worship planning, emails and meetings. Was that really what God had in mind when I

그 사고에 감사한다. 고통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상실 그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스러운가?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해 보겠다...

사건은 내 딸 카라의 여섯 번째 생일에 일어났다. 시원하고 상쾌한 토요일 아침, 나는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에 있는 우리 교회, 퍼스트 침례교회에 있었다. 내 아내 나탈리와 나는 그날 오후 교회 마당에서 카라를 위한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전날 밤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일찍 일어나 교회 마당과 길에 떨어진 낙엽을 치웠다. 사실 그 일은 꽤 재미있었다. 낙엽 송풍기를 메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였다.

그 일은 당시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몇 안 되는 즐거운 일 중 하나였다. 나는 서른네 살이었다. 16년 동안 이런저런 사역을 해 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여름에 기독교 청소년 캠프 상담사로 일한 이후로 줄곧. 아버지도 목사였으니 사역이 내 핏속에 흐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퍼스트 침례교회에서 6년째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수많은 일상적인 업무들, 행사 기획, 교회학교 운영을 담당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세한 실무를 꿰고 있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알았는지도 모른다.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목회자들의 위험 영역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번아웃. 가끔은 사역이 소명이라기보다 그저 사무직 업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나는 일하고 또 일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냈을까? 그렇다고 교회에 새 성도를 엄청나게 많이 전도한 것도 아니었다. 초년 시절에는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일을 하겠노라 꿈꿨다. 이제 내 삶은 예배 기획과 이메일 그리고 회의의 끝없는 반복이었다. 오래전 내가 하나님께 삶을 바쳤을 때 그분이 정말로 계획하신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을까?

교회 앞마당을 훑고 지나가는 동안 송풍기 소리가 잡념들을 삼켜 버렸다. 길

gave my life to him all those years ago?

As I blew through the church campus, the leaf blower drowned out my thoughts. There was something satisfying about watching the leaves as they scattered off the walkways. I came around a corner and turned away from the church, waving the blower. I took a step backward to get an area I'd missed and lost my balance. I'd unknowingly stepped on a garden edger. The weight of the leaf blower on my back sent me toppling over. I reached my hand out toward the church wall to brace myself and—

CRASH! My left arm smashed into a full-length, single-pane glass window. I screamed, falling to the ground. My arm was sliced all the way around the elbow joint as it came in contact with the broken shards of glass on the way down. *God help me...*

There was blood everywhere. I caught sight of my arm and almost passed out. Muscle hung out of my bicep. The bones were still attached, but everything else was severed. I had to stop the bleeding! I had to get help! But I was at the back of the church, far from the street. There was no one else at the church. *I'm going to die!*

I hobbled to my feet, grabbed my injured arm with my right hand and squeezed. Blood continued shooting out of it. I tried to run toward the parking lot. Maybe I could flag down a car? But suddenly I was dizzy. Disoriented. My right hand fell to my side. Blood poured out of my left arm. I reached into my pocket, pulled out my phone and dialed 911.

"I cut off my arm!" I yelled to the dispatcher and gave her the address for the church.

"Can you wrap a towel around it to make a tourniquet?" she said.

위의 낙엽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묘한 만족감이 들었다. 모퉁이를 돌아 교회 건물을 등진 채 송풍기를 흔들었다. 농친 구역을 청소하려고 뒷걸음치다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화단 경계석을 밟은 것이다. 등에 메고 있던 낙엽 송풍기의 무게에 균형을 잃고 뒤로 고꾸라졌다. 몸을 지탱하려고 교회 벽 쪽으로 손을 뻗은 순간!

광! 왼쪽 팔이 커다란 단일창 유리에 그대로 처박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쓰러지는 동안 팔이 유리 파편들에 끌리면서 팔꿈치 관절 주변이 온통 베여 나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방이 피바다였다. 팔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 두박근의 근육이 밖으로 나와 덜렁거리고 있었다. 뼈는 아직 붙어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끊어진 상태였다. 출혈을 막아야 했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 뒷마당에 있었다. 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러다 죽겠어!'

절뚝거리며 일어나 오른손으로 다친 팔을 움켜쥐고 짹 눌렀다. 피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왔다. 주차장으로 뛰어가 보려고 했다. 지나가는 차라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방향 감각이 사라졌다. 오른손이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다. 왼쪽 팔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을 꺼낸 뒤 911을 눌렀다.

"제 팔이 잘려 나갔어요!"

911 접수원에게 비명을 지르며 교회 주소를 불러 주었다.

"수건으로 팔을 감싸서 지혈대를 만드실 수 있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세상이 내 주변에서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그때 전방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The world seemed to wobble around me. I saw movement up ahead. A tall, skinny guy with blond hair. He was running, looking from side to side. As if searching for something. Searching for me? He spotted me and stopped, then ran faster in my direction.

I felt lightheaded, as if I was about to pass out. The blond guy reached me. He was young—I couldn't tell how old. I handed him my phone and bent over in confusion. Then I fell to the ground. The world around me began to dim. *Please, God, please save me... I need to be here for my wife and kids... I need...* I blacked out.

The next thing I saw was white. All white. As if I were enveloped in a cloud. I tried to speak, tried to pray. Only, in this gauzy place, it felt like I didn't have to. As if my prayers were known before I said them. I tried to make sense of my surroundings. Before I could, a screen filled my vision. A giant, wraparound movie screen. In it were millions of small squares. Each one alive with images like photographs. I couldn't see each one, but I knew what they were.

Moments. From my life. Surrounding me. My attention zeroed on a few of the images. Natalie. Cara. My son, Corban. They were surrounded by something, a kind of light. Like halos of love. Love for me. Love that I knew came from God. He was the source! Of all the love I'd given and received in the past 34 years of my life. How could I have ever taken even one moment for granted?

The screen disappeared. The white cloud intensified. I felt a deep peace. The end was near. I sensed myself lying on the pavement of the church parking lot. That blond guy was kneeling beside me, pressing something

금발을 한 키 크고 마른 남자였다. 그는 좌우를 살피며 달려오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나를 찾고 있는 건가?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추더니 내가 있는 쪽으로 서둘러 달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금발 남자가 다가왔다. 젊어 보였지만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에게 핸드폰을 건네주고는 혼란에 빠진 채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주변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발 살려 주세요... 아내와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필요해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온통 흰색이었다. 모든 것이 하얗다. 마치 구름 속에 파묻힌 것 같았다. 말을 해 보려고, 기도를 해 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흐릿한 이 공간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려던 찰나, 스크린이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사방을 둘러싼 초대형 영화 스크린 같았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사각형들이 있었다. 각각의 사각형은 사진 같은 영상들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영상 하나 하나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순간들. 내 인생의 순간들. 나를 에워싼 기억들 속에서 시선이 몇몇 장면에만 멈췄다. 아내. 카라. 아들 코반. 그들은 무언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일종의 빛 같았다. 사랑의 후광 같은.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분이 바로 근원이었다! 34년 인생 동안 주고받은 모든 사랑의 근원 말이다. 어떻게 그 모든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을까?

화면이 사라졌다. 하얀 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깊은 평안이 느껴졌다. 끝이 가까이에 있었다. 교회 주차장 포장도로에 누워 있는 내가 느껴졌다. 그 금발 남자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뭔가를 내 팔에 대고 있었다.

against my arm.

The paramedics arrived. One of them tied a tourniquet around my arm. I heaved a giant breath and—

WHOOSH! Faces stared down at me. I was back. And in incredible pain.

The rest of the day unfolded in a series of coincidences. Natalie's mom freaked out when she arrived early to the church with a bunch of balloons, and she called Natalie. I was rushed to the hospital, where one of California's most skilled plastic surgeons just happened to be on call. He put my arm back together. Most incredibly, I later discovered that the guy who spotted me at the church had picked up my phone, talked to the dispatcher and found a towel to hold against my arm. The doctors said if he hadn't done that, I would have died in 30 more seconds. He wasn't a member of the congregation. He'd simply wandered onto the church grounds, looking for his lost cat.

Looking for his lost cat! I went through months of grueling rehabilitation after that day. I eventually regained some function in my left arm. But a few years after the accident, the nerves still didn't work quite right. I've tried all sorts of remedies for the pain—I even had signal blocks implanted in my spine. Nothing seems to help.

So why do I give thanks for such a traumatic experience? One that I continue to experience every day? Because of that movie screen. And the realization that every moment of life matters. That my job, no matter how seemingly routine, matters. I look forward to going to work now. I even look forward to meetings—mostly. I especially love coming home to my family. I know where the love we share comes from. Thanks to the glimpse I received of love's great source.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중 한 명이 내 팔에 지혈대를 묶었다. 나는 크게 숨을 토해 냈다.


후우! 얼굴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다.

남은 하루는 우연의 연속으로 채워졌다. 장모님이 풍선 다발을 들고 교회에 일찍 도착했다가 기겁하고 아내에게 전화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마침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성형외과 의사 중 한 명이 당직이었다. 그가 내 팔을 봉합했다. 가장 놀라운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교회에서 나를 발견한 그 남자가 내 핸드폰을 집어 들고 긴급 구조 상담원과 통화하며 수건을 찾아 내 팔을 꼭 눌렀다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30초 안에 죽었을 거라고 했다. 그는 교회 성도가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다가 우연히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왔다니!

이후 몇 달 동안 혹독한 재활 치료가 이어졌다. 그 결과 왼팔의 기능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하지만 사고 이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신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온갖 치료법을 시도했다. 심지어 척추에 신호 차단 장치를 이식하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나는 이토록 충격적인 경험에 감사하는 걸까? 매일매일 겪어야 하는 이 일에? 그 영화 스크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소중한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아무리 반복적인 일처럼 보이는 내 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출근이 기대된다. 심지어 회의도 기대된다—대부분은. 특히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좋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다. 내가 받은 사랑의 위대한 근원을 엿본 덕분이다. 

번역 김보경

The Art of Prayer

Worship dance? Me? What were they thinking?

By KWI JAE PARK, Braintree, Massachusetts



기도가 춤이 되던 날

워십 댄스? 내가? 그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박귀재 매사추세츠주 브레인트리

Five six, seven, eight...

I waved two bright pink feathered fans above my head and twirled slowly to the beat of the worship song. Six dancers and I glided across the floor of our church's sanctuary, moving like a flowing current. I looked out at the congregation and smiled. It was hard to believe this year, 2025, marked my thirtieth performance, especially when you consider how I started.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는 밝은 분홍색 깃털 부채 두 개를 머리 위로 흔들며 찬양곡의 박자에 맞춰 천천히 회전했다. 여섯 명의 무용수와 나는 교회 강단 바닥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물결처럼 움직였다. 나는 회중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2025년 올해가 내 서른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시작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2001년으로 돌아가 보면, 내 남편 기한과 나는 매사추세츠주 퀸시에

Back in 2001, my husband, Ki Han, and I belonged to a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Quincy, Massachusetts. I had been a member of their women's Bible study group for about two years when the pastor asked me to be the leader. Such an honor! I was the oldest member in the group by about 15 years. I was strong in my faith, strong in my leadership, and I had never felt so called. So equipped. So confident.

Until the time came for our group to plan our spring presentation.

Typically we recited scripture—often a Psalm or a chapter from the New Testament—and sang a Korean worship song for the congregation. But that year, as we brainstormed ideas, a woman named Kyong raised her hand.

“Let's add in some worship dancing!”

“What is that?” I asked.

“It's when people dance to praise music to glorify God. I saw a few videos online from churches in Korea. It's beautiful!” she said.

“I love that idea!” one woman said.

“Sounds fun,” said another.

Before I knew it, all six women were talking excitedly about dancing.

Then they looked to me. I froze.

Dancing? Me? I was so uncoordinated that two left feet would have been an improvement. I'd learned that back when I was 18, studying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To take a break from studying, some friends and I had gone to the disco. (*Saturday Night Fever* was all the rage at the time.) I sat and watched while they took over the dance floor—first with the Hustle, then the Bump. I longed to join them.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었다. 그곳의 여성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나에게 모임의 리더를 맡아 달라고 하셨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모임에서 가장 연장으로 다른 회원들보다 열다섯 살 정도 더 많았다. 내 신앙은 견고했고, 리더십도 강했으며, 이렇게까지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감도 넘쳤다.

봄 발표회를 계획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보통 우리는 성경 구절—주로 시편이나 신약의 한 장—을 암송하고 성도들을 위해 한국어 찬양곡을 불렀다. 그런데 그해, 한창 아이디어를 내고 있을 때 경이라는 이름의 회원이 손을 들었다.

“우리 워십 댄스도 해 봐요!”

“그게 뭡데요?” 내가 물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찬양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올린 인터넷 영상을 몇 개 봤는데 정말 멋져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한 회원이 말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른 회원이 덧붙였다.

순식간에 여섯 명의 회원 모두가 춤에 대해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춤? 내가? 나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몸치 중의 몸치였다. 열여덟 살 때 서울의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 공부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위해 친구들과 디스코텍에 간 적이 있다. (당시 「토요일 밤의 열기」가 대유행이었다.) 나는 앉아서 친구들이 댄스 플로어를 장악하는 걸 지켜봤다. 처음엔 허슬을, 그다음엔 범프가 이어졌다. 나도 함께하고 싶었다.

“나 춤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 중 나이가 제일 많은 4학년 선배 언니한테 부탁했다.

“Can you help me learn to dance?” I asked my oldest friend, a senior.

“It’s easy,” she said. “Just follow me—step by step.”

But when I tried to copy her movements, my body stiffened up. I had no rhythm. I looked like a marionette with tangled strings!

My friends giggled and called me *beot beot*, or “stiff body” in Korean. All these years later, and I hadn’t danced since.

I was confident in teaching the Bible, in reciting scripture, in singing Korean praise music, in anything but dancing. I didn’t want to let my group down, but...

“Let’s do it!” I said. Why did those words fly out of my mouth? “I mean, yes,” I continued, “but I can’t dance. At all.”

“Don’t worry,” Kyong said. “There’s plenty of time before our presentation. We’ll start practicing next week. And we’ll take it step by step.”

Step by step? I’d heard that before!

At home that night, I prayed. *Lord, I understand worship dancing is a way to honor you, but you’ve seen how I move! Can you help me learn to be graceful? At least enough to blend in with my group? It felt as if I was asking for a miracle.*

The following week, we gathered in the sanctuary. Kyong played a CD. “This is the song I think we should use,” she said. “‘There Is None Like You,’ by Lenny LeBlanc.” We found a video online, and Kyong explained that she would break down the choreography to the rhythm and teach us.

“I’m going to count off,” she said. “Five, six, seven, eight, and you’ll move your arms up, then down, step to the left and twirl.” She demon-

“쉬워. 그냥 따라 해 봐. 한 동작씩.”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언니의 동작을 따라 하려고 하면 몸이 굳어 버렸다. 나는 박자 감각이 전혀 없었다. 꼬인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 같았다!

친구들은 킁킁거리며 나를 ‘뻗뻗이’라고 불렀다. 한국어로 ‘몸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춤을 춰 본 적이 없다.

성경 가르치기, 성경 구절 암송하기, 한국어 찬양곡 부르기, 뭐든 자신 있었지만 춤만은 예외였다. 회원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해 봅시다!”

내가 말했다. 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을까?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해 보죠. 그런데 전 춤을 못 춰요. 전혀요.”

“걱정 마세요. 발표회까지 시간은 충분해요. 다음 주부터 연습 시작하면 돼요. 한 동작씩 해 나갈 거예요.”

경이 말했다. 한 동작씩? 어디서 들어 본 말인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기도했다.

‘주님, 워십 댄스가 주님을 경배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작을 보셨잖아요! 우아하게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최소한 다른 회원들 사이에서 물어 갈 수 있는 수준만이라도 될까요? 기적을 바라는 것 같지만요.’

그다음 주 우리는 강단에 모였다. 경이 CD를 틀었다.

“이 곡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니 르블랑의 ‘주님과 같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온라인에서 영상을 찾았고, 경은 박자에 맞춰 안무를 동작별로 나눠서 가르쳐 주겠다고 설명했다.

“박자를 셀게요.”

그녀가 말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왼쪽으로 스

strated.

I nodded and took a deep breath. *Here we go...*

“Five, six, seven, eight...”

Everyone’s hands went up. Mine went down.

“Ugh, I’m sorry!”

I said. I took myself out of the lineup and stood off to the side. If God wanted me to do this, shouldn’t it come more easily?

“Don’t be so hard on yourself. It’s your first time,” Kyong said. “Get back in there—you’ll get it!”

I got back in line. This time, my arms flew up, in sync with everyone else. I missed the step to the left but managed an awkward twirl. Far from perfect, but it gave me a flicker of hope.

The next week at practice, I stood in our formation and visualized myself doing the opening sequence: Two twirls with my arms raised, then I’d kneel on my right knee, keeping my arms up. *Five, six, seven, eight...*

One twirl, two twirls, three twirls...oh no. Why had I added a third? By the time I got myself into the kneeling position, everyone else was on to the next move. Kyong paused the CD.

“I’m sorry,” I said again to the group. “I feel like I’ll never get the hang of this!”

“You may not feel like it,” Kyong said, “but I can see you’re getting better. You have a natural gracefulness.”

Me? Graceful? I jokingly looked around the room as if she were talking to someone else. Kyong laughed. “Yes, you, Kwi Jae,” she said.

템을 밟고 돌아요.”

그녀가 시범을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 간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모두의 손이 위로 올라갔다. 내 손은 아래로 내려갔다.

“어,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대열에서 빠져나와 옆으로 비켜섰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걸 하길 원하신다면 좀 더 쉬워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처음이잖아요. 다시 들어오세요. 할 수 있어요!”

경이 말했다. 다시 대열로 돌아갔다. 이번엔 내 팔이 위로 올라갔고 다른 사람들과 딱 맞아떨어졌다. 왼쪽 스텝은 놓쳤지만 어색하게나마 돌기는 했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그다음 주 연습 때, 나는 대형에 맞춰 서서 오프닝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팔을 올린 채 두 번 돌고, 오른쪽 무릎을 꿇으면서 팔은 계속 위로 유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안 돼. 왜 세 번을 회전한 거야? 내가 간신히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할 때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경이 음악을 멈췄다.

“미안해요.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회원들에게 또 사과했다.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요. 타고난 우아함이 있으세요.”

경이 말했다. 내가? 우아하다고? 경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있다는 듯이 나는 장난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이 웃었다.

“네, 귀재 자매님 맞아요.”

Maybe I didn't have to be "stiff body" forever. I tried again. I wobbled every time I twirled.

"You're so close!" one woman said.

"Don't give up!" said another.

Keep going. It was another voice, but it wasn't from the group. I heard it inside me. *I wouldn't call you if you weren't ready.*

Lord, are you sure?

I wondered. I didn't feel ready, but I tried the combination again. I still wobbled...but a little bit less.

Week after week, I showed up at practice, determined to master the steps.

At our final run-through before our presentation, I nailed the routine for the first time.

For the presentation, the seven of us wore black T-shirts, black pants and white gloves. We gathered in the sanctuary with 50 people watching us.

Lord, be with me, I prayed.

The song started. "There is none like you. /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Five, six, seven, eight, I counted off in my head. I swept my arms up and down. Then the music took over, guiding my body to the rhythm. I moved in unison with my group.

I twirled, my arms raised heaven-ward. I felt so light, so free. So full of joy. It was as if I was praying with my whole being, experiencing God's presence in a wonderful new way. Finally, I understood why he was calling me to do this.

Just like at our last practice, I hit every move. I thought about Miriam

어쩌면 '뻗뻗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돌 때마다 비틀거렸다.

"거의 다 왔어요!" 한 회원이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이가 말했다.

'계속하거라. 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목소리였다. 하지만 회원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내 안에서 들린 목소리였다.

'주님, 정말인가요?'

의구심이 들었다. 준비된 것 같진 않았지만, 계속 시도했다. 여전히 비틀거렸다...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다.

매주 연습에 나갔고 동작을 완벽히 익히겠다고 다짐했다.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에서 나는 처음으로 안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공연 당일, 우리 일곱 명은 검은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흰 장갑을 착용했다. 성도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강단에 모였다.

'주님, 함께해 주세요.'

나는 기도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주님과 같이 /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머릿속으로 박자를 세었다. 팔을 위아래로 휘둘렀다. 그러자 음악이 주도권을 넘겨받아 내 몸을 리듬으로 이끌었다. 나는 다른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나는 천국에 닿을 듯 두 팔을 높이 올린 채 빙그르르 돌았다.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 마치 나의 온 존재로 기도하는 것 같았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일로 부르셨는지 이해했다.

and the Israelite women in Exodus, dancing with tambourines to celebrate their deliverance from Egypt. When we finished, the congregation burst into applause. My husband was beaming, looking so happy for me.

From then on, our group kept worship dancing in our spring presentation and performed for holidays throughout the year. We changed up our clothing, from white dresses to purple and blue tunics to traditional Korean *hanbok*.

A few years later, I joined an international church, made up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mericans, Brazilians, Filipinos, Chinese, Indians, Haitians and Koreans like me. They didn't have a worship dance ministry, so I started one. We began simply, using only hand motions. Over time, we added more choreography and creative elements such as scarves, banners, angel wings and fans.

Not long before my thirtieth performance this year, I noticed one of the newer members struggling while we practiced. She missed a few of the steps and looked as if she wanted to run away.

"I just can't seem to learn these moves," she told me. "I'm not a dancer like you."

I laughed. "You should have seen me when I started. If God can teach me to dance, he can help anyone! Just follow me. Five, six, seven, eight..."

Together we moved in sync. I'd never felt so equipped. So confident. So sure of what God can do when we take a step—even an awkward one—outside our comfort zone.

마지막 연습 때처럼 나는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해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집트에서의 구원을 축하하며 소고를 들고 춤추던 모습이 떠올랐다. 공연을 마치자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남편은 내 모습에 흐뭇해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후로 우리는 봄 발표회에서 찬양 댄스를 계속 선보였고 일 년 내내 여러 기념일마다 공연했다. 의상도 바뀌 가며 입었다. 흰 드레스에서 보라색과 파란색 튜닉으로 그리고 전통 한복으로.

몇 년 후, 나는 한 국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미국인, 브라질인, 필리핀인, 중국인, 인도인, 아이티인 그리고 나 같은 한국인 등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그곳에는 워십 댄스 사역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동작만 사용하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안무와 창의적인 요소들을 추가했다. 스카프, 깃발, 천사 날개, 부채 같은 것들이었다.

올해 나의 서른 번째 공연을 앞두고 새로 들어온 회원 한 명이 연습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다. 몇 가지 동작을 놓친 그녀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표정을 지었다.

"이 동작들 도저히 못 배우겠어요. 저는 자매님 같은 댄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내 모습을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춤을 가르치실 수 있다면 누구든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냥 날 따라 해 봐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는 함께 박자를 맞춰 움직였다. 나는 이토록 준비되어 있고 자신감 넘친 적이 없다. 비록 서툴더라도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 이토록 확신한 적이 없다. **G**

번역 김보경

His Cardinal Rule

Why this man has crafted hundreds of redbirds out of wood and given them away

By JACK KIRBY, Allons, Tennessee



나무로 만든 홍관조

그는 왜 나무로 만든 수백 마리의 홍관조를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었을까?

잭 커비 테네시주 알롱

I slipped into the darkened room at the nursing home, not wanting to disturb the resident if she were sleeping. I was carrying a potted African violet in full bloom. Raising African violets was my hobby, and I enjoyed giving them to the people I'd gotten to know at this care facility near my home in Indiana.

The elderly resident was awake. She said hello and motioned to the chair beside her bed as I set the

요양원의 어두워진 방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면서 이 방에서 지내는 할머니가 주무신다면 깨우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활짝 핀 아프리카제비꽃 화분을 나르는 중이었다. 아프리카제비꽃 재배는 내 취미였고, 인디애나주에 있던 집 근처의 요양 시설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화분을 나눠 주는 일은 즐거웠다.

요양원 입주 어르신은 깨어 있었다. 할머니는 인사를 건네고, 내가 창틀에 화분을 놓으려고 하자 침대 곁에 있던 의자를 가리켰다. 할머니

plant on the windowsill. She was quite ¹frail, her body almost disappearing underneath her blanket.

“I brought you an African violet,” I said. “It burst into bloom just this morning.”

She smiled ²wanly and looked toward the window. “I wish...” she said softly. I leaned closer so I could hear.

“I wish that just once before I die, I could look out that window and see a redbird. That way I’d know everything was going to be all right.”

Then she closed her eyes.

Her last wish. And she’d chosen to share it with me. I ³felt bound to make it come true. But how? It wasn’t as if I could summon a cardinal to appear at her window. Still, I understood this was no small hope, that for many people a redbird was a sign that God was near. Maybe this lady needed assurance that she was going to heaven.

I drove home, the responsibility weighing on me. In the garage, I spied an old piece of plywood. What if I made a cardinal? I was no artist. Still, I was going to do my best to get this woman her redbird. I used a band saw to cut a very rough outline of a cardinal. I painted the whole thing red. I didn’t use different colors for the mask, the eye, the beak. Just red. I nailed it to a ⁴stake, returned to the nursing home and pounded the stake into the ground outside the resident’s window while she slept. She died a few days later, before I could visit again. The care home staff told me that whenever she was awake, she’d gazed out the window, smiling, never realizing the redbird wasn’t real.

I felt blessed to be a blessing, but that was as far as it went. I worked

는 몹시 허약했고 담요 아래에 있는 몸은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아프리카제비꽃을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에 막 활짝 피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미소를 짓고는 창가 쪽을 바라보았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나는 들을 수 있게끔 몸을 가까이 기울였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창밖으로 홍관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만사가 괜찮을 텐데 말이죠.”

그러더니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할머니는 그 소망을 나와 나누려 했다. 그걸 이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할머니의 창문으로 홍관조를 불러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소한 소망이 아니라는 건 알았다. 많은 이에게 홍관조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어쩌면 할머니는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운전해서 집으로 오는 동안 책임감이 날 짓눌렀다. 차고에서 오래된 합판을 찾아냈다. 홍관조를 만들면 어떨까? 나는 예술가는 절대 아니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 홍관조를 데려다주는 데 최선을 다하려 했다. 락 톱을 이용해서 홍관조의 윤곽을 아주 대충 자른 뒤 전체를 붉게 칠했다. 새의 얼굴, 눈, 부리에도 다른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저 빨간색이었다. 나무새를 말뚝에 못질한 다음, 요양원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창밖의 지면에 말뚝을 고정했다. 할머니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방문하기 전이었다. 요양원 직원은 할머니가 깨어 있을 때마다 창밖을 보고 미소 지었으며, 새가 가짜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다.

남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 나 역시 축복받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인디애나주의 제너럴 모터스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부업으로 아프

full-time for General Motors in Indiana and raised African violets on the side. I wasn't looking for a new hobby.

In 1995, I retired from GM. My wife, Janice, and I moved back home to the rolling green hills of middle Tennessee to start the next chapter in our lives. We bought a 200-acre property with an old log cabin and a barn. We restored the cabin to live in and set about raising a herd of Angus cattle, a return to the life I'd known as a boy.

The woods and pastures and creeks were where I talked to God and he talked to me. I felt closer to my maker than I had in years, and I figured being a gentleman farmer was what he intended for me in retirement.

Then one day in my barn, I came across a stack of cedar planks that the previous owner must have left behind. In my mind's eye, I saw something I hadn't thought of in years: the cardinal I'd made for the elderly woman in Indiana. These planks were the perfect size and material to make more.

The next rainy day, I went to the barn and drew the outline of a cardinal on one of the boards—still ⁵primitive but a little more ⁶polished than the first one I'd made—and cut it out.

I traced the outline on the cedar, then cut. And so on. Then I painted each cardinal. Red body and head, black mask, white eye, golden beak. I attached several of the birds to fence posts in front of our house. Janice liked them, which was good enough for me.

Until friends and family starting asking about my “folk art.” Strangers stopped to inquire if the cardinals were for sale. They weren't, but I was happy to give a cardinal to anyone who asked.

리카제비꽃을 길렀다. 새로운 취미는 찾지 않았다.

1995년에 제너럴 모터스에서 은퇴했다. 아내 재니스와 나는 인생의 다음 장을 시작하기 위해 테네시주 중부의 녹색 구릉지에 자리한 고향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낡은 통나무집과 헛간이 있는 약 24만 평의 땅을 샀다. 주거지로 쓸 오두막을 수리하고 앵거스 소 떼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소년 시절에 알던 생활로 되돌아간 셈이었다.

술, 목초지, 시내에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이었다. 지난 오랜 세월보다 나를 창조하신 분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고, 취미로 농사짓는 사람이 되는 일이 그분께서 은퇴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헛간에서 예전 주인이 남긴 게 분명한 백향목 널빤지 더미를 우연히 찾았다. 머릿속에서 수년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떠올랐다. 인디애나에서 할머니를 위해 만든 홍관조였다. 널빤지들은 홍관조를 만들 만한 완벽한 크기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었다.



그다음 비 오는 날에 나는 헛간에 가서 널빤지 한 장에 홍관조의 윤곽을 그렸다. 여전히 어설프지만, 전에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했다. 그리고 그것을 잘라 냈다.

백향목 널빤지에 그린 윤곽을 따라서 자르고 계속 그렇게 작업했다. 그리고 나서 홍관조마다 페인트로 칠했다. 붉은 몸통과 머리, 검은 얼굴, 흰 눈, 황금빛 부리. 우리 집 앞 울타리 기둥에 몇 개를 붙였다. 아내는 그것들을

Some people just wanted them for decoration. Others were deeply moved, sometimes to tears.

For them, a cardinal was a visitor from heaven, a ⁷confirmation that their late loved one was home with God.

So I've kept on making these wooden redbirds. I gave a neighbor lady a whole flock when her husband passed away. One went to my favorite reporter at our local newspaper when she was diagnosed with cancer.

I give them to people who tell me they just can't find their smile. I've ⁸lost count of how many cardinals I've made over the past three decades, but the number is in the hundreds. It warms my heart to spot them all over my little town and to see Facebook pictures of the ones I've given to folks who live far away.

Sometimes people ask if I make other kind of birds. Blue jays? Mockingbirds? Woodpeckers? My answer is no. Cardinals ⁹are my thing. They're special. And as long as I'm able, I'll keep on with this hobby.

If a simple little redbird made of rough-cut wood can bring someone comfort and joy, I'm all in. I know it's not my handiwork that touches them. Like I said, I'm no artist. But I'm definitely inspired.

단어 설명

1. frail[freil] 허약한
2. wanly[wánli] 힘없이
3. feel bound to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4. stake[steik] 말뚝
5. primitive[primitiv] 원시적인, 초기의

6. polished[pólijit] 세련된, 깔끔한
7. confirmation[kánfərméifən] 확증, 입증
8. lose count (세고 있던) 수를 잊어버리다
9. be one's thing ~의 취향[특기]이다

마음에 들어 했고, 그걸로 충분했다.

친구들과 가족이 나의 '민속 공예'에 대해 묻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랬다. 낯선 이들이 잠시 들러서 홍관조가 판매용인지 물었다. 판매용은 아니지만 누구든 청하는 사람에게는 기쁘게 나눠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장식용으로 원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깊이 감동해서 눈물까지 보였다.

그들에게 홍관조는 천국에서 온 손님이며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집에 있으리라는 증거였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무 홍관조를 만들었다. 이웃의 부인에게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홍관조 무리 전체를 건넸다. 한 마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신문의 기자에게 갔는데, 그녀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였다.

나는 미소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홍관조를 건넨다.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홍관조를 만들었는지 세다가 잊었지만, 수백은 될 거다. 작은 우리 마을 이곳저곳에서 홍관조를 발견하거나, 멀리서 사는 이들에게 나눠 준 홍관조 사진을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면 마음이 따스해진다.

때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새도 만드는지 묻는다. 파랑 어치? 흥내지빠귀? 딱따구리? 내 대답은 '아니요'이다. 홍관조가 내 특기다. 그들은 특별하다.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 취미를 계속할 거다.

나무를 대충 잘라서 만든 작고 단순한 홍관조가 누군가에게 안식과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다. 그들을 감동하게 한 것이 내 수공예품이 아님을 안다. 말했다시피 나는 예술가가 아니다. 하지만 영감은 확실히 얻었다. 

번역 김동은

생명을 소망하며



이제는 제법 친숙해진 단어 ‘소망’.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바라다’의 의미를 가진 ‘소망(所望)’을 생각하겠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여러 개의 동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중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이 ‘소망(消亡)하다’로, 그 뜻은 ‘사라져 없어지다’이다. 같은 말로는 소멸하다….

자기소멸의 의지가 강했던 지금까지의 내 삶은 후자의 ‘소망(消亡)하다’와 잘 어울렸다. 20대 초반, 생을 마치려고 하던 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던 친구가 전화로 그런 말을 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그 한마디가 날 살리는 말이 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갈망하는 삶’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나는 스스로 ‘죽어 마땅한 년’이 되었다. ‘그럼 그렇지, 네가 행복할 수 있겠어? 너는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고, 지옥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넌 죽으면 더 편해질 거야.’ 이런 채찍질은 퇴근 후 어둑해진 밤,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많이 떠올랐다. 참고 참다 패배하길 반복.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지막 편의점을 지날 때, 어김없이 술을 사고 말았다. 맨정신으로는 5평 남짓한 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울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꼭 세상에서 사라져야지’라는 굳은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

그러나 내가 죽음과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끊임없이 내게 살라고 명하는 하나님께 나는 분노했다. 살아야 할 이유도 말하지 않고, 내게 살라고 명령하는 건가?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대라고, 지금은 힘들지만 내게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고생한 만큼 내가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이라도 해 보라고 소리쳤지만, 동문서답의 대가이신 그분은 대답이 없으셨다. 삶의 정당성을 부여해 달라는 간절함은 그렇게 외면당했다. “살라” 이 한마디만 남긴 채.

지금까지 그 답을 듣지 못했지만 나는 살아 있다. 내가 그분의 명령에 충실했던 건지, 그분이 날 살리신 건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죽음에 대한 갈망은 사실 누구보다 끈질기게 살고 싶다는 생명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평생 누구에게도 반항 한번 없던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그분만은 내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받아 줄 거란 믿음이 있었기에,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 준 유일한 분이었기에,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해서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나는 ‘죽음’으로 시위를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게 죽음을 소망(消亡)하던 내가 결혼 후, ‘생명’의 잉태를 소망(所望)하게 됐다. 결혼하고 아기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기다림이 3년을 지나가고 있다. 난임을 겪게 될 거라고는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자연스러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는 시간이었다. 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스스로 해하려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배아 이식을 4월과 5월 두 번의 도전으로 아기를 갖는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끝일지 시작일지 모르는 때를 앞두고 여러 감정이 올라온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 주셨는데, 가장 두렵고 낯설던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이제 내가 가장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은 상처의 자리를 싸매셔서 생각지도 못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수많은 이의 기도와 격려를 받았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으로 품어내고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내가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느낀다. 그 어느 때보다 짙은 기다림으로 생명을 붙드시는 소망의 주님께 감사드린다. **G**

글 박미선/자유기고가

Guideposts

정기구독 안내

국내 정기구독료

1년 48,000원(4,000원 × 12개월)

2년 96,000원(4,000원 × 24개월 + 2개월 추가 혜택 = 총 26개월)

해외 정기구독료

- | | |
|---------------------|-------------------------|
| 1.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 72,600원(우편료 24,600원 포함) |
| 2.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 73,320원(우편료 25,320원 포함) |
| 3. 유럽, 미국, 러시아 등 | 80,280원(우편료 32,280원 포함) |
| 4. 쿠바, 멕시코, 아프리카 등 | 93,120원(우편료 45,120원 포함) |

구독 혜택

- 신규 구독 신청 시 과월호 2권 추가 증정
- 재구독 신청 시 신앙 서적 1권 증정 (국내 배송만 가능)

※ 주소 변경 시, 매월 12일까지 연락 주시면 다음 호부터 새 주소로 발송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입금계좌 기업은행 082-122183-04-029(예금주: 에프엔제이홀딩스 주식회사)

*신용카드 납부 및 문의 사항은 02-362-4000으로 전화 주세요!

*010-7401-3763 번호는 가이드포스트에서 드리는 만료 안내 전화이니 꼭 받아 주세요.

NAVER

N 가이드포스트코리아



@guidepostskorea

어떤 시선

화면 가득 붉고 하얀 줄이 세로로 굽게 지나간다. 그리고 약간의 푸른 빛이 도는 실루엣. 조금 거친 재질에 군데군데 뿔가 묻은 듯한 줄무늬의 표면이 일종의 가림막처럼 그 너머의 빛을 투과시킨다. 줄무늬의 색깔 때문에 국기나 깃발이 연상되기도 한다. 얼핏 무슨 얼룩 같기도 하고 그림자 같기도 한 푸르스름한 실루엣이 붉고 흰 줄 너머로 어른거린다.

남산 근처 나지막한 건물의 1층에서 4층까지 이어지는 사진전. 작품들은 제목 없이 걸려 있었다. 관람객은 사진을 둘러싼 시간과 공간을 상상한다. 이미지 속에서 단서를 찾기도, 상상력을 동원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유독 이 사진, 도무지 어떤 장면을 담은 건지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사진 앞에 선 동행과 나는 돌아가며 물음표를 던질 뿐. 색깔은 선명했지만 미스터리 같은 이미지였다.

전시의 제목은 《HUMAN MOMENT》, 평생 사업가로 살면서도 사진작가로의 전업을 고심할 만큼 사진에 애정을 쏟은 유명 그룹의 전직 회장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사람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진을 선호한다는 작가가 평범한 주변을 향해 보내는 섬세하고 따스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이라고 전시 소개는 적고 있었다. 참마다 작품들의 분위기가 달라서 다시 2층으로 돌아왔다. 마음에 남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그런데 거기서, 직접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작가와 마주쳤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아시죠? 일본 사람들은 평소에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보기 힘들겁니다. 이날은 포장마차에 들어갔는데 제 맞은편에 두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게 느껴졌죠. 먼저 자리를 뜨면서 포장마차 뒤쪽으로 갔어요. 곧바로 돌이 입맞춤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담았죠.”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 앞에 선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체를 알 수 없던 푸른빛 형상은 내내 조심스럽다가 다른 손님이 나가자 그제야 입을 맞춘 연인들의 뒷모습이었다. 포장마차 안 세 사람 사이 어딘가 어색했던 공기가 한순간에 누그러지고, 곧장 뒷모습의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을 붙잡은 작가의 시선에서 탄생한 이미지는 이제 모호함 대신 전시 제목대로 공감의 온기를 퍼트렸다.

“사람마다 시선이 머무는 곳은 다르다. 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의 자취가 남은 풍경을 좋아한다. 사진에서도 결국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에 조금 더 머문다. 사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다.”(작가의 말 중)

그날의 전시작들은 작가가 지난 50년 동안 찍은 사진 중 고른 것들로, 담긴 대상도 둘러싼 시공간도 다양했다.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안에 깃든 시선이나 이야기를 펼쳐 놓는 사진들이 있었던 반면, 앞서 말한 장면처럼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단서도 찾기 어려운 종류도 있

었다. 공통점은 모두가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 찍은 이의 시선을 담고 있다는 것.

지난겨울 인상적이었던 그 사진 작품을 한동안 핸드폰 배경 화면으로 삼았다. 첫인상과는 무척 달라졌던 이미지라 마음속에 하나의 화두를 던져 주었다. 전시장에 걸려 있던 건 결국 모두 작가의 시선이였다. 바라보고 담아낸 그의 눈길이 있었기에 탄생했고 거기서부터 생명력을 얻은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는 동안 자꾸 시 한 편이 떠올랐다.

예뻐서가 아니다 /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_ 나태주 '꽃3'

수줍은 연인의 뒷모습을 담아낸 사진작가, 지나가다 꽃 앞에서 이런 말을 건네는 시인. 때로 세상도 나도 온통 우연과 무의미의 연속으로만 보이는 날이면 꺼내 보고 싶은 것들. 그런 시선을 닮아 가기를 소원하면서, 또 그렇게 밝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 내는 어떤 시선을 느끼면서. ㉞

클 이시내/자유기고가

사무엘서에서 발견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김다위 목사
최신간

유기성 목사
강력 추천!

DAVID SAMUEL HANNAH

왜 브닌나가 아닌 한나였을까?
 왜 엘리 대신 사무엘이었을까?
 왜 사울 대신 다윗이었을까?

단 하나!
 지금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춰라!

“이 성경들을 들으며 저는 말씀 안에서 서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기성(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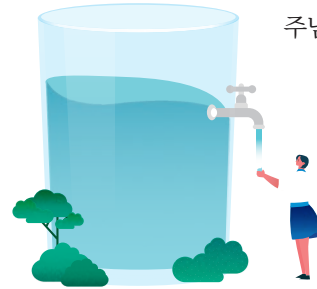
물 한 잔의 사랑

제가 지금의 교회로 온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러다 2년 전부터 예배 후 식당에서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눈에 띄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있고, 옆에 자녀가 함께할 때도 있는 분인데 항상 인사를 하면 말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혼자 식사하던 어느 날, 제가 물 한 잔을 드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역시 말없이 빙긋이 웃으십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식사하러 갈 때면 제일 먼저 그분께 물을 떠다 드리지요. 그리고는 저도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하루는 옆에 앉은 자녀가 엄마에게 물을 가져다주어서 고맙다며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예쁜 딸과 잘생긴 아드님이 있네요” 했더니 “저희 집에는 중증 장애가 있는 오빠도 있어요. 저희는 결혼도 안 했고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저는 물을 드릴 때마다 더 사랑을 담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 한 잔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예의 하나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원리가 담겨 있지요. 타인에게 사랑을 주려면 먼저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 채

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사랑이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기보다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담아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많이 배웠든 덜 배웠든, 달변이든 늘변이든 모든 경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심을 다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갖고 지켜보면서….



물 한 잔을 건네주는 일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임을 깨닫습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작은 쓰레기를

주울 때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우면 그것

으로도 충분히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는 작은 희생,

눈길 한 가닥 그리고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아

주 사소하지만 세심한 관심이면 충분할지도 모

릅니다. 당연히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야 하지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의 섬김이지요. 섬김이야말로 마음의 빗장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숨구멍이 되지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숨구멍이 되고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지 않나 합니다. 사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0:42). **G**

글 박복순/자유기독교

여러분은 저희의 Good Friends입니다.

이름	부수	이름	부수
W그룹	1,225부	고려대학교 의료원 김영훈 교수	51부
(주)S사	1,043부	금융투자협회	50부
(주)K그룹	600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35부
하나금융그룹	600부	(제일교회 제5여전도회 :	15부)
S그룹	600부	(제일교회 제9여전도회 :	20부)
(주)지주	417부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	30부
파이낸셜뉴스신문	350부	이혜숙(광민형제의 집)	30부
(주)N사	300부	해성교회 성장현 담임목사	22부
포스코인터내셔널	250부	LX홀딩스	21부
삼성전자(주)	209부	류주영(대구 수동)	20부
현대자동차(주)	209부	새힘병원(원장 이철우)	20부
(주)HS효성	209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15부
스타벅스코리아	200부	한상운 선교사	12부
한국공인회계사회	200부	서번산업엔지니어링 정용환 대표이사	10부
(주)H사	105부	우리이웃의원(원장 오세현)	10부
(주)LS	100부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	100부		
법무법인 율촌	100부		
(주)K사	63부	익명후원	2,781부
수협은행	63부	총 후원 부수	10,050부



- 가이드포스트는 여러분의 후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 본 명단은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명단에 누락 혹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명단을 만들 수 있도록
02-362-4000으로 전화 주세요.

가이드포스트 구독신청 및 날권 구매
스마트폰으로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http://smartstore.naver.com/guideposts_kr)